

‘아픔’을 나눔으로써... ‘남성 사역’은 시작한다

기독일보 주최 ‘남성사역’ 세미나 LA사랑의교회서 열려

‘남성사역의 대상자는 교회 안의 모든 남자입니다’고 주장하는 이병일 목사(Man in the Mirror Korea 대표)가 기독일보 주최로 열린 세미나를 24일 오전 10시 30분에 LA사랑의교회에서 이끌었다.

이목사는 남성 사역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 애를 쓰는데 이유는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과 남성들이 할 수 있는 일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가 여성들 때문에 일어서기 시작했다. 여자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섬기니 골치 아픈 남성들을 신경 안 써도 교회가 굴러간다”면서 “여자들의 신앙은 깊고 감성적이지만, ‘내 아들 잘되게, 우리 집 잘되게, 우리 남편 잘되게’하는, 기복신앙이 있다. 반면에 남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면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했다.

그는, 남성들이 교회에서 적극



‘남성사역의 대상자는 교회 안의 모든 남자입니다’고 주장하는 이병일 목사(Man in the Mirror Korea 대표)가 LA사랑의교회에서 남성사역 세미나를 이끌었다. ©기독일보

적으로 참여하고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소그룹 사역이 필요하다고 했다. “남성에 관성이 있다. 조금만 놔두면 바로 옛날로 돌아간다. 그들을 교육하고, 소그룹을 통해 움직여야 한다. 남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

이 가만히 두지 않는다. 미디어에서 남성을 폭력적인 상으로 자주 묘사한다. 잘못된 리더십을 포장하고, 감정을 억누르고, 미디어에서 만든 남성 이미지에 계속 빨려 들어가고 있다”라면서 “그런 것을 보다가 교회에 오면 전혀 다른 문

화를 제시한다. 교회 문화는 어느 정도 여성적인 문화가 배경이 되어 있다. 교회 들어가서 그 문화에 익숙해지려면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다가 교회 안에 위계질서가 보이기 시작한다. 먼저 온 분들의 뒷새, 기득권이 있다. 그러면

서 남성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외장창 무너진다”고 했다.

이어 “자녀의 문제, 아내와의 문제, 비즈니스 문제가 생기면, ‘이게 뭐지?’라고 하면서, 자기의 위선적 신앙에 좌절한다. 많은 남성들이 자신의 위선적 모습에 환멸을 느끼다 결국 교회와 멀어진다”며 “아내와의 관계성에서도 배우자가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야 한다. 남자의 우월감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목사는 “남성사역은 제자화로부터 시작된다. 제자화는 행동의 수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통해 가능하다. 그 사람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꽂혀 있는가가 열쇠이다”라면서 “말씀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 형제의 마음에 예수가 심겨져 있는가이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져 있으면 그 형제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고 했다.

토마스 멩기자
→ 2면에서 계속

영 김 의원, USAGM 축소 행정명령에 우려 표명

“자유아시아방송·미국의소리 등 억압 정권 내 진실 보도해온 공공외교 핵심 도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소리(VOA), 자유아시아방송(RFA) 등 미국의 국제 방송을 총괄하는 미국글로벌미디어국(US-AGM)의 조직을 대폭 축소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가운데,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영 김 의원은 3월 19일 내셔널 리뷰에 기고한 글을 통해, “USAGM의 개혁은 필요하지만, 이 기관을 해체



영 김 연방하원의원이 2024년 7월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자유북한주간 행사에서 북한인권을 위한 연설을 하고 있다. ©기독일보

한다면 억압적 정권들에 의해 탄압을 받아온 자유를 사랑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기관 해체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USAGM이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라는 미국의 가치를 전 세계에 전파해 온 ‘공공외교의 첨병’임을 강조했다. 그는 “US-AGM 산하 플랫폼들은 권위주의 정권의 인권 탄압 실태를 폭로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인 예로 그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위구르어 서비스를 언급했다. 해당 서비스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 ‘재교육 캠프’에서 벌어지는 위구르족에 대한 감금과 박해 실태를 최초로 국제사회에 알렸으며, 이는 전 세계 인권 단

체와 언론이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 의원은 “RFA의 위구르어 서비스는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된 유일한 위구르어 뉴스 매체로, 외부 정보에 대한 철저한 통제가 이뤄지는 지역에서도 신뢰받는 정보를 꾸준히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RFA는 북한 강제수용소 내 인권 유린 실태, 코로나19 초기 중국 당국의 사망자 수 은폐, 등 민감한 사안들을 지속적으로 보도해 왔다. 최근에는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합류한 정황을 세계 최초로 한국어로 보도했다. 김대원 기자 → 4면에서 계속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7Day 24hours (213)400-6363
\$ 미국 ↔ 한국 ₩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부동산법 ■ 뱅크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라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태양광, 솔라!!
2025년 대박
☑️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 연방ITC: 30% 이상
☑️ 솔라 설비의 광가상객비 총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시)
☑️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BTS SOLAR DESIGN 213.500.8000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미국교수와 한국교수의 콜라보!
신학/목회학 석사 100% 온라인 수업

목회학 박사(캠퍼스 인텐시브)

MA in Christian Ministry & Leadership : 총 49학점
MDiv (목회학 석사과정) : 총 79학점

- 100% 온라인 수업
- 연간 3학기제 운영: 봄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
- 학기별 16주 운영
- 학기당 3학점 두 과목 이수 가능 (연간 18학점 수강 가능함, 사역실습은 별도)
- 매주(총16주간) 미국인 담당교수의 동영상 강의 시청
- 한국인 교수의 실시간 온라인 수업
- 한국인 교수의 수업 내용(수업 주제 리뷰 + 발표 + 퀴즈풀이 + Q&A)

Ed Stetzer, Ph.D.
달보의 교수진은 보수적 복음주의적 신학 입장에서 신학도들과 사역자들을 양성해 왔습니다. 달보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양성하고,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세상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달보에서 신학교육을 받아야 하는 7가지 이유

1. ATS/WSCUC 정회원교로서 기독교 정신과 학문적 수준을 갖춘 최고 수준의 신학대학원입니다.
2. 성경의 무오성을 주장하는 보수적 복음주의 신학의 선두주자입니다.
3. 교수진은 보수적 복음주의 신학을 고수하며, 저명한 학위와 학술 작품을 발표한 학자들입니다.
4. 바이올라 대학교에 소속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재정적으로 안정된 신학대학원입니다.
5. 신학 교육의 혁신을 통해 영성형성을 토대로 하는 전인적 교육을 실시합니다.
6. 초교파 신학교로서 성경강해를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 제자도에 집중합니다.
7. 신학지식 뿐 아니라 인격과 영성, 사역을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배움의 장입니다.

모집 요강

(미국) 913 202 4084, [한국] 010 3024 5958

korean.masters@biola.edu

biola.edu/talbot-korean

교수소개 Faculty *아래 교수진은 석사 과정 강의자 중심이며 달보에는 그 외에 더 많은 교수진이 있음

Minsoo Sim, Ph.D./ Th.D Professor of Christian Education & Practical Theology, Director	Eddie Byun, D.Min.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Benjamin C. Shin, D.Min.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and Leadership	Clinton E. Arnold, Ph.D. Research Professor of New Testament	John Coe, Ph.D. Professor of Spiritual Theology	Sunny Song, Psy.D.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and Leadership
Daniel E. Kim, Ph.D. Associate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Semitics	Scott Rae, Ph.D. Professor of Philosophy and Christian Ethics	Gary Manning, Ph.D Professor of New Testament Language and Literature	Joanne Jung, Ph.D. Professor of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	Ashish J. Naidu, Ph.D. Professor of Theology	Mark Saucy, Ph.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Doug Geringer Associate Professor of New Testament Language and Literature	Kevin Van Lant, Ph.D.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and Leadership	Rob Price, Ph.D. Associate Professor of Theology	Kenneth C. Way, Ph.D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Semitics	Ryan S. Peterson, Ph.D. Associate Professor of Systematic Theology	R. Scott Smith, Ph.D. Professor of Christian Apologetics
Kyle Strobel, Ph.D. Associate Professor of Spiritual Theology	Uche Anizor, Ph.D. Professor of Theology	Karin Stetina, Ph.D. Professor of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	Jeannine Hanger, Ph.D. Associate Professor of New Testament	Dominick Hernández, Ph.D. Associate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Semitics	J P Moreland Distinguished Professor of Philosophy

하늘바라기



©unsplash.com.

고요 속에

- 김은주

귀가 들리지 않아
주님의 음성을 들어볼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책망일까
사랑일까

고요 속에 귀 기울여 보자
주님께 더 가까이 오란다
복잡한 세상 소리를 멈추고
침묵의 음성으로 대화하잖아
사랑하잖아

주님 얼마나 기다리신 거예요...
죄송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김은주 시인은 캘리포니아 프리스티지 대학교에서 “선교학적 관점에서 본 선교사 탈진에 관한 비평적 통찰”이라는 논문으로 박사 학위(Ph.D.)를 받았다. 2024년 미주한인기독문인협회 신인상을 수상했으며 「울타리글벗문학회」 회원, 「미주한인기독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새생명선교회 소형교회 목회자 후원 및 세미나

고 박희민 목사의 소천 2주기를 기념하여 ‘소형교회 목회자 후원 세미나’가 개최된다. 4월 7일(월) 오전 9시~오후 4시까지 새생명선교회(대표 김은형) 주최로 새생명비전교회(강준민 목사)에서 열리는 이 행사에서는 세미나 외에도 작년 11월 22일(금)~12월 20일(금)까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선발된 목회자 50명에게 1인 당 후원금 1,500~2,000 달러가 전달된다. 새생명선교회의 김은형 대표는 “고 박희민 목사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2024년에 이어 올해도 소형 교회 목회자 후원 및 세미나를 실시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이들 목회자들이 재정적인 지원과 영적인 위로와 힘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이민자를 제자로 섬기는 선교적 교회”라는 주제로 개척교회 및 소형 교회 목회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김경진 목사(기쁜우리교회)가 개회예배 설교를

말았다. 각 강의 주제 및 강의자는 다음과 같다. ▶노창수 목사(남가주 사랑의교회) 제자훈련 ▶권혁빈 목사(씨드교회) 디아스포라 사역 ▶김우준 목사(토렌스조은교회) 설교사역 ▶박은성 목사(나성영락교회) 이민목회와 위기관리 ▶민종기 목사(충현선교교회) 원로, KCMUSA 이사장) 목회리더십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 영성훈련. 한편, 이번 후원 및 세미나를 지원한 목회자들에게 1) 교회 내 어려움, 2) 소명, 3) 올해의 목회계획에 관해 설문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 1) 재정적 어려움, 2) 전도와 성장 부진, 3) 교인의 고령화와 다음 세대 및 인력 부족 4)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친구 및 멘토의 부재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 newlifemissionfdn@gmail.com



세계예수교장로회 LA 중앙노회, 새임원진 선출

세계예수교장로회(WPC) LA 중앙노회가 지난 17일(월) 오후 6시, 필랜성은교회(담임 김성권 목사)에서 ‘땅 끝까지 전진하는 노회’(마 28:19-20)를 주제로 제10회 정기 봄노회를 개최했다. 1부 예배는 서기 김경식 목사(한마음선교회 담임)의 사회로 시작으로 노회장 김경호 목사(조이풀교회 담임)의 ‘땅 끝까지 전진하는 노회’(마 28:19-20) 설교와 부노회장 김성권 목사(필랜 성은교회 담임)의 축도로 드러졌다. 2부 순서는 부회계 노명구 목사(남가주 하나교회 담임)의 성찬식 집례와 신관호 목사(생명문 선교교회 담임)의 성찬식 축도로 진행됐다.

3부로 회무에서는 새로운 임원진이 세워졌다. 노회장 필랜성은교회 김성권 목사, 부노회장과 서기에 시애틀 샘솟는선교회 정앤드류 목사, 회록서기에 생명문선교교회의 양한석 목사, 회계에 한마음선교회 김경식 목사가 추대되어 새로운 회기가 활기치게 시작됐다. 세계예수교장로회 산하 Petra University는 B.Th, M.Div, D.Min 과정의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유학비자(F-1)가 가능하며 수시입학 및 편



입이 가능하다. 문의는 213-210-3877이나 www.petrauniversity.org로 하면 된다. 김민선 기자

→ 1면 기사 <‘아픔’을 나눔으로써...>에 이어서 또한 남성들이 교회 내에서 서로의 문제를 나누고,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희생’임을 강조했다. 그는 “남성들은 먼저 내 아픔을 나누지 않으면 대화를 시작하지 않는다”라며, “먼저 나 자신



이병일 목사. ©기독교일보

을 벗고 진심으로 나누면 남성들이 마음을 열고 대화하기 시작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목회자의 경우 자신을 드러내면 성도들이 자신을 더 이상 따르지 않을 거고, 자신의 안전지대가 위협받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계급장을 떼고, 나의 어려움,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나누면 거기서 많은 남성들이 감동하고, 목사님을 친구로 받아들이게 된다”라고도 조언했다. 그는 “씨뿌리는 비유에서처럼, 밭이 준비안 되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 지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남성사역이다. 남자들의 제자화는 그들의 관심과 필요를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풀어나가야 한다”라며 “맨 인더 미러의 창립자 패트릭 몰리(Patrick Morley)는 그들의 문제를 하나 하나 파고들어가서 나누기 위해 책 <내 삶의 여정(My Journey)>을 썼다. 성경적 크리스천과 문화적 크리스천, 하나님 중심적인 남성, 성공, 결혼, 자녀, 교만, 두려움, 분노, 정욕, 돈 등 우

리 삶의 문제들을 하나 하나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남성사역을 위한 첫걸음은 각 남성들의 내면적인 변화와 헌신이라고 한 이병일 목사는, 소그룹 리더가 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열정, 자기부정, 희생, 복종을 강조했다. 또한 “남성사역은 단기적인 변화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형성과 꾸준한 기도가 필요한 작업”이라며, “교회 내에서 남성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신앙 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남성들을



참석자들은 남성사역 소그룹 교재 <My Journey> 3장을 읽고 그룹 별로 생각을 나눴다. ©기독교일보

세우시려는 계획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이 이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남성사역 소그룹을 이끌고 있는 한 리더는 “집이 화목해졌다”라고 간증하는 한편, 강의를 들은 한 사모는 “강연을 통해 많은 것을 생각해보게 된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창립26주년 임직감사예배

에브리데이교회 창립 26주년 임직예배를 맞이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세워지는 임직자들과 함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도로 함께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창민 담임목사

일시 : 2025년 4월 6일(주일) 오후 4시
장소 : 에브리데이교회 본당



손창민 담임목사

■ Worship Hours
주일 1부 8:00 AM (통역제공)
주일 2부 9:30 AM (통역제공)
주일 3부 11:15 AM (통역제공)
수요예배 7:30 PM
새벽기도회 월~토 5:30 AM
EM 9:30 AM / 11:15 AM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9:30AM/11:15AM
초등부(KIDZ1, KIDZ2) 9:30 AM & 11:15 AM
중고등부(ROOTS) 9:30 AM & 11:15 AM
한여청년부(CEYA) 11:15 AM
영여청년부(KARDIA) 1:00 PM



2025 임직자 명단

피택장로	성제환, 임인래, 하원일 (3명)
명예장로	김태흥, 민병호, 신상화, 정윤걸, 조경완(5명)
안수집사	Charlie Chung, David Jung, Jake Kim, Joseph Jung, Sam Shim, Steve Myung, 권순규, 김광열, 김동환, 김의범, 민경일, 박창균, 박형일, 이종원, 한동욱 (15명)
권 사	Amy Oh, Christine Chung, Hannah Cho, Janice Park, Sunny Kim, Sunnie Shaw, 구주디, 김소현, 김장연, 김혜정, 백소영, 신옥화, 심지수, 오윤정, 이숙영, 임영자, 차정원, 천정미, 최세리(19명)
명예권사	Jennifer Kim, 이정자 (2명)

에브리데이 교회

www.churcheveryday.org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Office: 818-832-6628
admin@churcheveryday.org

새로운 리더십으로 새 챕터 여는 LA비전교회

LA비전교회 15주년 창립 기념
담임목사 이·취임 감사예배

김대준 목사의 리더십 아래, 첫 챕터를 써온, LA비전교회가 고주열 목사의 새로운 리더십 아래 새 챕터를 시작한다. 3월 23일(주일) 오후 3시 LA비전교회가 담임목사 이·취임 감사예배를 드렸다.

1부 예배, 2부 이임식, 3부 취임식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서중학 목사(SBC 한인 남가주 지방회장, 파세데나 주님의교회)의 인도로 시작해, 김영하 목사(SBC 한인총회장, 살롬선교침례교회)가 “힘써 행하소서”(스 10:1-5)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영하 목사는, “기도할 때, 주의 교훈을 따를 때,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순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행할 때, 교회에 소망이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며, 이 교훈을 바탕으로 성도들과 후임 목사가 동역해 나가길 당부했다.

2부 임직식은 김재왕 장로(LA비전교회)의 이임목사 소개, 김대준 목사 사역 발자취 영상, 현병훈 장로(GMCC 선교회 대표, 남가주 사랑의교회) 치하의 말씀, 감사패 증정 및 김대준 목사의 인사 순으로 진행됐다.

김 장로는 “월드미션 대학에서 신학, 목회학을 공부하시고 중국 선교사(1992-2003), 북경비전교회 개척(2004-2009)하셨으며, LA에 오셔서 LA비전교회를 개척하셨다”고 소개했고, 현병훈 장로(GMCC 선교회 대표, 남가주 사랑의교회)는 “1992년 목사님께서 서울 구치소 사역을 하시다가 중국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받고 평신도로서 중국으로 들어가셨다. 중국 북한 접경 지역에서 제자 훈련을 하시고 처소교회를 세우시고 서부까지 전도하셨다. 성경 연구원을 통해서 150여 명의 제자, 사역자를 길러내셨다”라고 말했다.

“미국으로 오셔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일반인 침례교회에서 선교목사로 활동하셨다. 2004년도에 미션 기도학교를 개설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새롭게 다가가셨다. 선교 세미나를 마친 졸업생들이 목사님의 중국 선교를 후원하기 위해 GMCC 선교회를 세웠다.”

“다시 중국으로 가셔서 북경 비전교회를 개척하시고 유학생 대상 목회를 하셨다. 3년 만에 5백 명이 넘는 성도가 모이게 되었다.”. 북경비전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2009년 공안에 의해, 출국하셨다. 그후 LA로 오셔서 LA비전교회를 개척하시고 제자를 양육하시고, 작은 자, 소외된 자를 위한 사역을 하였고, 2세들을 함께 선교에 참여하게 하는 등,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을 제시하셨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어떻게 귀하게 사용하실지 기대된다. 김대준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사역하신 그 부분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더 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김대준 목사는, “여러분 같은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었다. 생각도 못한 여러 분들이 와 주셔서 큰 격려를 받는다. 이 격려가 새로운 LA비전교회로 향하기를 바란다. 이제 저를 부를 때, ‘브라더 김’으로 불러주길 바란다.”



3월 23일(주일) 오후 3시 LA비전교회가 담임목사 이·취임 감사예배를 드렸다. 2대 담임목사로 취임한 고주열 목사(왼쪽)가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김대준 목사(1대 담임목사)와 김은혜 사모(오른쪽). ©기독일보

김대준 목사, “이제 ‘브라더 김’으로 불러 달라” 고주열 목사, “많은 이에게 칭찬 받는 교회로 이끌길 소망해”

목사는 인격의 통일성 지녀야
목회는 단거리 아닌 장거리 마라톤

3부 취임식에서 권면사를 전한 강요섭 목사(말라위대학교 종교학 교수, 러시아 상페테루르크 루터신학교 교수, PCUSA 선교사)는, “신임 목사님에게 권면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세가지 사역, 선포, 교육, 치유를 잘 하시길 바란다”며, 그것 외에 한 가지를 덧붙였다.

“목사도 계속해서 공부해야 한다. 성경 해석의 깊이가 매우 깊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그 말씀의 깊이에 들어가지 못하면 증거하지 못한다. 오늘 기술이 발달했는데 목사들이 지식에 있어서 뒤쳐지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목사는 인격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왕좌왕하지 말고 소신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 목회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이다.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인내력, 지구력, 진정성(integrity)이 필요하다.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의 십자가 부활을 더 알기 위해 핏대를 향해 달려가는 이것을 목사님도 실천하기를 바란다.”

2천년 동안 계속된, 복음의 증언자
대열에서 새로운 길 열어 나가길

강요섭 목사는 교인들에게는 다음과 같이 권면했다. “선교는 함께 하는 것이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선교를 후원한 많은 동역자들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감사한다고 말하는데, 그 감사의 이유는 ‘신뢰’, ‘사랑의 행동들’, 그리고 ‘변함 없는 소망’이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늘 실천하실 때 고 목사님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목사님이 목회할 때 보람은 교우들과 관계이다. 교우들과의 끈끈한 관계, 이것이 여생을 살아가는 원동력, 힘이 된다. 신뢰, 사랑, 소망이 관계로 이어 나가시길 바란다.”

“김 목사님이 1대 담임목사로 한 길을 만드시고 한 챕터를 만드셨다.

고주열 목사님께서 2대 목사로 다른 챕터를 시작하고 있다. 2천 년 동안 계속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구름 같은 믿음의 증언자의 대열에 여러분이 서실 수 있고, 2천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시길 바란다.”

축사를 맡은 김기대 목사(NewM 논설위원, 영화평론가, 평화교회)는, “정말 작은 평화의 교회에서 목회하시던 분을 청빙하셨다. 흰 도화지 같은 분이시다. 비전교회 교인 여러분 탁월한 선택을 하셨다”고 말했다.

한신 동문 목회자회가 축가를 부르고, 고주열 목사가 “이 시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은 감사와 베품이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를 이곳에 불러 주셔서 귀한 종의 길을 허락해 주셨다. 많은 사람에게 칭찬 받는 교회로 LA비전교회를 이끌어 가길 바란다”라고 인사했다.

예배는 고주열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되었으며, 예배 후에는 친교 및 식사 시간이 있었다.

LA비전교회 2대 담임으로 취임한 고주열 목사는 팜택대학교(B.A), 한신대 신학대학원(Th. M), 풀러신 학교(D. Min 수료)에서 수학했으며, 분당 한신교회 부목사, LA 평화의교회 부목사로 사역했으며, 가족에는 오영화 사모와 세 자녀가 있다.
주디 한 기자



오후 3시 LA비전교회가 담임목사 이·취임 감사예배를 드렸다.

동양선교교회 & 히즈쇼, VBS 지원 강습회

동양선교교회와 히즈쇼는 한인 교회를 위해 영어 버전 VBS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4월 26일(토) 오후 2시~4시 동양선교교회 본당에서 현

장 강습회를 개최한다. 강습회에 참여하는 교회들에게는 VBS Content Kit 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번 강습회는 1) 소규모 교회를 위한 맞춤형 VBS - 소규모 한인 교회도 가능한 콘텐츠 2) 재정적 부담을 줄여 소규모 교회(학생 15명,

교사 4명 미만)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콘텐츠 3) 적은 교사로도 충분히 가능한 VBS 콘텐츠 4) 교회간 네트워킹을 통한 VBS 업그레이드를 특징으로 하며, 현장 참여 및 온라인 참여가 가능하다.

응모기간은 4월 26일까지이며, 동양선교교회 홈페이지 <https://omc.org/omcmmission>를 통해 응모할 수 있다.
문의 : 323-466-1234 / omcoffice1@gmail.com 조셉 리 기자

HYUNDAI
GETAWAY
SALES EVENT



NEW 2025 HYUNDAI Palisade
Calligraphy



NEW 2025 HYUNDAI Tucson Hybrid
SEL Convenience AWD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1-888-644-7114



봄맞이 세일

0%
APR Financing

48개월까지 할부 가능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가능
Special Lease Program available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Assurance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NEW 2025 HYUNDAI Santa Fe Limited



NEW 2025 HYUNDAI Ioniq 6 Limited RWD



NEW 2025 HYUNDAI Ioniq 5 Limited RWD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KWMC, 선교사 자녀 장학생 모집... 미래 선교 리더 양성

지원자격, 부모가 최소 1년 이상
선교사로 사역
모집기한 3. 24~4. 19

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 (Korean World Mission Council, 이하 KWMC)가 선교자 장학생을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3월 24일~4월 19일(오후 1시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1. 부모가 최소 1년(5년차 부터) 이상 현장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 자녀, 2. 미국 혹은 한국 선교단체에서 파송되었거나, 선교사 협의회 소속 선교사 자녀, 3. 신입생 및 중고생, 대학생 (가정 당 1명, 휴학생 제외), 4. KWMC 9, 10차 대회에 참여한 선교사 자녀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 지원금은 중고생 1인 \$500, 대학생 1

인 \$500이다. 신청자는 ◆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 제공), ◆ 선교사 소속 단체 증명서, ◆ 재학증명서, ◆ 개인 간증문을 제출해야 하며,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에는 후원 감사의 의미로 2분 분량의 영상 편지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 영상 편지는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활용된다. 제출 서류는 kwmc.usa@gmail.com으로 접수하면 된다. 장학생 선발 결과는 2025년 5월 중 발표될 예정이며, KWMC의 공식 채널을 통해 공지된다. KWMC의 MK 장학 프로그램은 선교사 자녀들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이 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이루고, 선교지에서의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KWMC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기독교 한인 공동체 미래를 위해 KWMC는, “이번 장학 프로그램을 통해 기독교 한인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선교사 자녀들이 학업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미래의 선교 리더로서 더욱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학금 관련 문의: KWMC 공식 이메일 (kwmc.usa@gmail.com)

2025 MK장학금 지원공고

KWMC에서 2025년 선교사 자녀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MK들의 신청 바랍니다.

지원 대상	1. 부모가 최소 1년(5년차 부터) 이상 현장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 자녀 2. 미국, 한국에 선교단체에서 파송되었거나 각 국가의 선교사 협의회 소속 선교사 자녀 3. 신입생 및 중고생, 대학생 모두 지원 가능 (7개월 당 1명, 휴학생 제외) 4. 부모의 사역지에서 현지인 학교(국립학교, 외국인 학교 제외)를 다닌 MK 우선권 부여 5. KWMC 9, 10차 대회에 참여한 선교사 자녀에게 가산점 부여
지원 규모	1. 지원 인원: 총 80명 (중,고생 및 대학생) 2. 지원 금액: 중고생 1인 \$500, 대학생 1인 \$1,000
신청 일정	1. 신청 기간: 2025년 3월 24일 - 4월 19일 (오전 10시~오후 1시) 2. 발표일: 2025년 5월 중
지원 대상	1.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 참고) 2. 선교사 소속 단체 증명서 3. 재학 증명서 4. 개인 간증문 5. 신청서 제출 한시점에 대한 2분 분량의 영상 편지 (필수 사항) (이메일로 장학금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이메일 : kwmc.usa@gmail.com 전화 : 070-4610-1347

03.24-04.19



오른쪽 두번째 김정석 이사장 (LA 북부한인회)

글렌데일 다문화 축제 행사서 LA북부 한인회 감사장 수상

지난 22일 (토)글렌데일 YMCA에서 다문화 축제 행사가 열렸다. LA북부 한인회(회장 박승목)는 매년 이 행사에 참가하여 한국 음식 소개, 전통 한복 입어보기, 한국 문화 정보 나누기, 댄스 발표, 전통 악기 소개 등을 통해 한국 문화를 알

리고 있다. 이날, 본지(기독교일보) 총괄 본부장이기도 한, LA 북부한인회 김정석 이사장이 한인회 대표로 글렌데일 시장이 수여하는 감사장을 받았다.

주디 한 기자

러빙워십, ‘새롭게 하소서 팀’과 두번째 콘서트

지난해 주영훈의 <새롭게 하소서>팀과 함께 “Beloved” 콘서트를 개최했던 러빙워십(Loving worship 대표 조셉 리 목사)이 오는 5월 <새롭게 하소서> 팀과 다시 함께 무대에 오른다. 5월 2일(금)부터 4일(주일)까지 감사한 인교회, 나성영락교회, 충현선교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콘서트의 주제는 “The Holy One Concert” (주의 거룩한 자)이며, 배우 허준호, 싱어송 라이터 조병진, 찬양 사역자 여니엘, 작곡가 주영훈 씨가 함께한다. 1부 찬양 Concert, 2부 은혜의 집회로 구성되며, 전문 음악가들이 참가한다. 러빙워십은, “이번 콘서트를 통해 많은 가정과 영혼들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한다”라고 말했다. 집회 일정 5/2 (금)- 7PM 감사한인교회 5/3 (토)- 6PM 나성영락교회 5/4 (일)- 6PM 충현선교교회 콘서트 문의: 213-357-1565



→ 1면 기사<영 김 의원, USAGM>에 이어서 김 의원은 이러한 공적에 비추어 USAGM의 축소는 곧 미국의 도덕적 리더십 약화를 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날 하원 외교위원으로서, 미국이 자유와 진실의 목소리를 전 세계에 전하는 공공외교 수단을 지키는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USAGM은 자유유럽방송(RFE/RL),

미국의소리(VOA), 중동방송망(MBN) 등 지역별 독립 매체를 통해 약 50개 언어로 매주 3억 명 이상의 전 세계 청중에게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을 해체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미국의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억압 정권 하에서 진실을 기다리는 수많은 이들에게 심각한 손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USAGM 내부의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지적하며, 개혁의 필요성에는 일정 부분 공감했다. 그는 “행정부 가 연방 지출을 절감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USAGM의 운영 전반을 재검토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일부 플랫폼이 본래의 사명인 자유와 민주주의 증진에서 이탈한 사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

고 밝혔다. 이러한 현실을 언급한 김 의원은 “지금 같은 때일수록 USAGM이 더욱 신뢰받는 공공 미디어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기관 자체를 해체하는 것은 그릇된 방향”이라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USAGM을 본연의 사명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버지 밥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장재호, 박기호, 김준연,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번호사 : 정찬웅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2025년 대박

무료 설치 서비스
전기선에 필수인 240V 아울렛을 무료 설치 해 드립니다.

백업용 배터리
정전에 끄떡없고 절약을 위한 옵션, 고객님들께 원가에 제공합니다.
SCE 지역 필수 / LADWP 선택 옵션

초기부담 없는 \$0 다운부터
풀 페이먼트 / 할부 결제 / PPA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텍스 크레딧: 최대 30%
감가상각: 최대 80% 적용
(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BTS Solar?

고객님들께 드리는 서비스 약속

- 최고의 서비스**
잘 훈련된 프로페셔널 팀이 최고의 제품을 사용하여 설치해 드립니다.
- 최고의 워런티**
고객님의 시스템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업계 최장 25년 워런티를 보장합니다.
- 최고의 제안가격**
타사대비 25-40% 저렴한 가격으로 제안 드립니다.

www.btssolar design.com

LA: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213.500.8000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714.702.0151

빠른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십시오.

1. 최신 전기빌을 준비해 주세요.
2. 전기빌 1~4 페이지를 사진 찍으신 후 문자 또는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3. 확인 후 고객님께 별도 안내 드립니다.

시니어 건강칼럼 - 뇌자극과 치매

“치매를
막고 싶다면
뇌자극이 우선!”

뇌도 자극이 필요하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건강한 노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뇌 건강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혈압이나 혈당은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도 뇌 건강은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신체가 노화하듯 뇌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기능이 서서히 저하된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흐려지며, 의욕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억력 좋아지는 음식’을 챙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뇌는 적극적으로 자극할수록 건강하게 유지된다.

뇌 건강을 위한 기본 실천들

건강한 뇌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전문가들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권한다. 뇌에 좋은 영양소가 포함된 식단(생선, 견과류, 녹황색 채소 등)을 섭취하면 뇌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준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뇌 혈류를 증가시켜 인지 기능 개선에 효과적이다. 또한 독서, 글쓰기, 퍼즐 등 뇌를 사용하는 활동은 신경회로를 자극해 기억력과 사고력을 높인다. 이외에도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맺는 활동도 뇌를 자극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이러한 방법들은 모두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좋은 습관이다. 하지만 그 효과는 서서히 나타나며, 이미 뇌 기능 저하가 시작된 이후에는 즉각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뇌의 자극에 대한 반응이 느려지고, 손상된 신경세포의 회복 능력도 떨어진다. 따라서 단순히 식습관이나 운동만으로 뇌 기능을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뇌 건강이 걱정된다면 기존 생활 습관에 더해, 보다 과학적이고 직접적인 뇌 자극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이제는 뇌를 보다 체계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치료법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들은 단순한 예방을 넘어 실제 뇌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기억력 감퇴나 집중력 저하, 우울감이 느껴진다면, 단순히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뇌를 바로 자극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치매 예방도 뇌 자극에서 시작된다

치매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뇌 신경세포가 손상되거나 사라지면서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이다. 한 번 발병하면 회복이 어렵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커진다. 이러한 치매를 예방하거나 진행을 늦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뇌를 꾸준히 자극하는 것이 중요하다. 뇌 자극은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하고, 새로운 신경 회로를 만들어 뇌의 가소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즉, 뇌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활성화할수록 치매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적극적인 뇌 자극을 통한 예방 관리가 필수다. 생활습관 개선과 더불어 보다 효과적인 뇌 자극 방법을 병행한다면, 노 년기에도 맑은 정신과 건강한 기억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

우울증, 뇌 자극의 필요성을 알리는 신호

노년기에 건망증이 심해지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활동량이 줄면서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단순한 기분 문제로 생각하지만, 우울증은 뇌의 신경전달물질 균형이 깨지는 의학적 질병이다. 우울증을 방치하면 만성 질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노년기에는 약물에 대한 부작용 위험도 높아져, 치료에 제한이 많다. 따라서 단순한 생활습관만으로 뇌 건강을 관리하기엔 부족하며, 더 강력하고 직접적인 뇌 자극 방법이 필요하다.

뇌도 관리가 필요하다

건강한 뇌 없이는 건강한 노후도 없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 좋은 습관을 지키면서 보다 효과적인 뇌 자극 방법을 함께 실천하는 것이 독립적인 삶을 이어 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뇌를 안전하고 강력하게 자극하는 현대 의학의 새로운 방법이 등장했다. 바로 경두개 자기 자극 치료, TMS다. TMS는 자기장을 이용해 뇌를 자극 하는 비침습적 치료법으로, 기억력 개선과 우울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음 호에서는 TMS 치료의 원리와 효과, 실제 사례에 대해 자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선교사님들 생애와 사역, 열매가 이 길 위에”

총 4가지 코스 ‘신촌 순례길’ 지정

한국 선교 140주년을 맞아 한국 초기 선교사와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는 총 4가지 코스의 ‘신촌 순례길’이 지정됐다.

순례길 1코스는 총 4.4km로, 합정동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을 출발해 극동방송과 서교동교회 언더우드기념관을 지나 노고산동 신촌성결교회를 거쳐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가 기념관을 둘러보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2코스는 총 5.8km로, 이성봉 목사의 모노드라마를 관람하고 신촌성결교회를 출발해 연세대 언더우드기념관을 지나 이화여자대학교를 거쳐 동막교회에서 종료된다.

3코스는 일명 ‘성결교회 역사의 길’로, 아현성결교회 경성성서학원을 출발해 황도현-무교동전도관-성결교회 설립지, 구리개전도관-체부동교회, 신수동교회를 지나 신촌성결교회로 도착하며 성결교회 주요 유적지들을 돌아보는 여정이다.

4코스는 ‘이성봉 목사 부흥의 길’로, 신촌성결교회를 출발해 임마누엘기도원, 수원교회와 목포복교동교회를 거쳐 땅끝 신안 압태교회와 임자도교회를 거쳐 증도까지 이어진다. 코스 중 신촌성결교회를 방문할 경우, 이성봉 목사 모노드라마와 역사관을 관람한 후 카페에서 잠시 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

‘신촌 순례길’ 출범 기자간담회는 3월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신촌성결교회(담임 박노훈 목사)에서 개최됐다. 앞선 1부 감사예배에서는 박노훈 목사 인도로 권철 목사(서교동교회)의 기도예배에 이어 우영수 목사(서교동교회 원로)가 ‘역사의 향기 따라(사사기 21:19-21)’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축도했다.

2부 간담회에서는 한국순례길 상임이사 임병진 목사 사회로 소개



신촌 순례길

영상을 시청했다. 임 목사는 “설립된지 2년째로, 전국 12개 지구에서 순례지의 스토리와 순례길을 조성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문화를 만들고, 유네스코 근대문화유적 등록까지 추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임병진 목사는 “가톨릭에 비해 개신교 순례길은 늦은 감이 있지만, 힘을 합쳐서 새로운 순례 루트를 만들어낸다면 한국교회에 새로운 빛을 비출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서울 신촌 일대가 중요하고 의미 있는 지역이라 순례길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사말을 전한 한국순례길 고문 이정익 목사(신촌성결교회 원로)는 “전국적으로 기독교 유적지를 비롯해 역사와 숨결이 남은 곳들이 산재해 있다. 하지만 유적지가 구슬처럼 흩어져 있었는데, 하나씩 꿰어보니 작품이 되고 명승지가 됐다”며 “한국 기독교 순례길은 사람들을 힐링시키고 영감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익 목사는 “지방에는 순례길이 활성화됐지만, 서울에는 아직 구슬만 많이 남아 있었는데 잘 꿰지 못해 그동안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며 “이번에 마침내 좋은 작품

을 만들게 됐다. 무지한 조선 여인들을 깨우치기 위해 설립된 이화학당과 연희학교, ‘한국의 무디’ 이성봉이 전국을 다니며 성령의 불을 일으킨 곳들, 그리고 양화진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역사와 흔적이다. 이러한 구슬들을 잘 꿰는 계기가 마련되어서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밝혔다.

한국순례길 전재규 이사장은 “대구 기독교 역사를 3년간 연구하면서, 성결교회 역사도 소상하게 기록했다. 대구에서 성결교회가 잘 알려져 있던 않은데, 순례길에 있는 봉산성결교회 등을 통해 많이 알려지고 있다”며 “순례길이 1년 만에 12개 지부가 생겼고 전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고 소개했다.

전재규 이사장은 “순례길은 관광길이 아니다. 순례길에는 영성이 있기 때문이다. 올레길이나 관광지와 다르다. 관광은 한 번 가면 다시 오지는 않는 곳”이라며 “반면 영성이 있는 순례길은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다시 찾게 된다. 북음으로 남북이 통일되면 이미 계획해 놓은 금강산 순례길을 함께 걸으며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자”고 말했다.

서울지부장 박옥배 장로는 4가지 코스의 신촌 순례길과 주요 거점들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그는 “선교 140주년에 왜 신촌 순례길인가”라며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한국에 도착한 지 70년째 되는 1955년, 이성봉 목사 사택에서 창립예배를 드린 신촌성결교회가 올해 70년을 맞이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순례길 출범에 대해 박옥훈 목사는 “신촌 순례길은 잘 아시듯 선교사님들의 삶을 고스란히 담아낸 연세대와 이화여대, 선교사님들이 안식하신 양화진선교사묘원, 그 사이 사이 선교사님들의 열매인 한국교회 부흥 벨트가 이어지고 있다”며 “선교사님들의 생애와 사역, 열매가 길 위에 있다”고 했다. 박옥훈 목사는 “어제 교단 목사님들과 많은 사람들이 무심히 오가는 이 상업화된 길을 걸으면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생각하며 가슴이 다시 뜨거워짐을 느꼈다”며 “이 길을 걸으면서 다시 소망과 생명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란다. 한국교회가 절망에서 소망으로, 사망으로 영생으로 변화를 경험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길 기도하고 바란다”고 전했다. 축사도 이어졌다. 연세대학교 교목 김동환 교수는 “귀한 순례길 속에 연세대가 있고, 언더우드기념관을 주요 지점으로 넣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저도 학교를 다닐 때는 교내에 기념관이 있음을 잘 모르고 졸업했다가, 교목이 되고서야 뒤늦게 알게 돼 수업 중 학생들과 직접 기념관을 방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이하 양화진) 담당 김호현 목사는 “양화진은 선교사들의 헌신과 눈물을 묵상하고, 그들을 보내주신 주님께 흐트러졌던 초점을 맞추게 하는 좋은

매듭짓기의 현장”이라며 “1백만 명이 찾아오는 명실상부한 기독교 성지가 된 요인을 생각해 보니, 조선 사회를 변화시킨 주님의 손길을 이 시대에도 경험하고 자신도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겠노라 결단하기 위해서 아닐까”라고 전했다.

국회조찬기도회 지도위원 장현일 목사는 “다음 세대들이 역사적 성지 순례의 길을 통해 차별과 아픔과 가난을 이겨낸 역사를 계승하길 바란다”며 “국가유산청이 5월 출범했다. 등록된 불교 사적은 970곳이나 되지만, 기독교는 3곳에 불과하다. 전통문화도 의미가 있지만, 근현대사의 주인공인 기독교 종교유산의 귀중함도 알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순례길은 천혜의 자연 힐링 요소와 유서 깊은 종교 자원, 역사 유적이 어우러지는 순례길을 조성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지속가능한 길을 유지 관리 및 활성화를 통해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힐링을 넘어 영성으로, 방랑자에서 순례자’라는 슬로건으로 12개 지부가 조직돼 있다. 화진포 셔우드 홀 기념관을 중심으로 한 금강산 통일 순례길(강원고성), 배재학당 중심 정동 순례길(서울), 아펜젤러 중심 인천강화 순례길(인천강화), 물길 따라 충주 호수 순례길(충주), 금강 포구 순례길(충남), 예수병원 중심 전주 순례길(전주), 전킨·드류 선교사 중심 군산 성지 순례길(군산), 청라언덕 중심 순례길(대구), 양림 선교동산 중심 마룻바닥 부흥 체험길(광주), 순양원 목사 중심 감사 순례길(전남동부), 문준경 전도사 중심 12사도 순례길(목포신안), 이기풍 목사 중심 제주 순례길(제주) 등이다.

이윤준 기자

일본 법원, 통일교 집단에 해산 명령

일본 법원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에 해산을 명령했다.

지난 2022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암살 사건 관련 조사로 시작된 일본 정부의 해산명령 청구를 도쿄지방법원이 3월 25일 받아들인 것이다.

일본 종교법인법은 법령을 위반해 현저하게 공공복지를 해칠 것으

로 분명히 인정되는 행위나 종교단체 목적에서 현저한 일탈 행위가 있을 경우, 법원이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 살해범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영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히자, 일본 정

현저한 일탈 행위 시 명령 가능

부(문부성)는 통일교의 고액 현금 문제 등을 조사한 후 2023년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2년 만에 결과가 나온 것이다. 통일교는 민법(종교법인법)에 따라 취소 명령을 받은 첫 종교단체라고 한다. 앞서 도쿄 지하철에서 사린가스 공격

을 가한 옴진리교, 간부들이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묘카쿠지 그룹 등 2곳의 사이비 단체는 형사 고발됐다. 문부성은 살해범 면담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거친 5천여 건의 문서와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법원 밖 통일교 관련 합의금이 200억 엔(약 1,950억 3,000만 원)

을 넘어섰고, 1,500명 이상이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

통일교 측은 과다한 현금 강요를 인정했으나, 2009년 규정 준수를 강화한 후 문제가 줄어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면세 특권이 박탈되고 자산을 청산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언론들은 보도했다. 신미셀 기자

TV 기독교일보 신앙간증

늘 새롭게

당신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시간!
미주 기독교일보 유튜브 신앙 간증 프로그램 “늘 새롭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당신의 간증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됩니다.
인생의 고비에서, 기도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주세요.
'늘 새롭게'에 나오셔서 진솔하게 신앙간증하실 분이나
주위에 추천하실분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신청 및 문의 : 기독교일보 213-739-0403/chdailya@gmail.com

* 미주기독교일보 유튜브에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서 **'CDTV 미주 기독교일보'**를 검색하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서울메디칼그룹이

No.1 인 이유는
늘 따뜻한 마음으로 가족을 지켜온
오늘의 당신 덕분입니다

더 많은 사랑으로
더 건강한 시간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 이승만 대통령 헌신의 결실”

‘이승만 건국대통령 탄신 150주년 기념예배’ 정동제일교회서 열려

(사)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회장 김남수)가 26일 오후 서울 정동제일교회(담임 천영대 목사)에서 이승만 건국대통령 탄신 150주년 기념예배를 드렸다. 정동제일교회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생전 장로로서 출석했던 교회다.

문무일 사무총장(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의 사회로 진행된 1부 개회식은 조보현 부회장(배재학당 이사장)의 개회선언, 김남수 회장의 기념사, 축사, 공로패 증정 순서로 진행됐다.

◆ **우남 정신, 차세대에 빛나는 유산**
먼저, 김남수 회장의 기념사를 김유광 부회장이 대독했다. 김 회장은 “청년 이승만은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 한반도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심겠다는 불굴의 의지를 지니고 있었다”며 “해방정국 3년간 민주공화정 헌법 제정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해 낸 이승만 대통령의 리더십은 해안으로 가득하다. 그의 선견지명으로 대한민국 80년의 역사가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했다. 이어 “전시 대통령 이승만은 참혹한 환경에서도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다시는 공산군의 침략을 용납않겠다는 그의 대미투쟁은 혈맹미국을 붙들었다”며 “세계지도가 붉게 물들어 갈 때, 한반도 남쪽만은 자유대한민국으로 섰다.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방 후 이승만의 경쟁자이자 비교 대상은 김일성이었고, 이승만이 설계한 대한민국의 비교대상은 김일성의 북한이다. 아

직도 이승만과 김일성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국제법상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라는 엄연한 사실은 잊지 않아야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승만 대통령은 하나님 이 중심이 되는 대한민국을 꿈꾸셨다.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로 대한민국 건국의 첫발을 내디뎠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떠나셨다”며 “이승만 대통령의 ‘못 치면 살고 흡어지면 죽는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라는 명언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우남 150주년 탄신을 맞는 올해는 해방 80주년이면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 서거 60주기이기도 하다”며 “이승만 대통령을 숭모하시는 여러분의 성심어린 우남정신이 차세대에게 빛나는 유산이 되어 주시리라 굳게 믿는다”라고 전했다.

◆ **자유민주주의의 체제 굳건히 지켜내**
이어서 축사 순서가 진행됐다. 강정애 장관(국가보훈부)의 축사를 전종호 서울지방보훈청장이 대독했다. 강 장관은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운동가이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서, 일제강점기 암흑의시간 속에서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도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세계에 알리셨다”며 “격변의 시기인 광복 후에도 뛰어난 해안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며, 농지개혁, 의무교육 도입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기반을 다지셨다. 또한 6.25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 속에서도 유엔군 파병과 한미상호

방위조약 체결을 이끌어내며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굳건히 지켜내셨다”고 했다.

더불어 “비록 이승만 대통령님의 공과 과에 대한 의견들이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번영은 자유대한민국의 초석을 세운 이승만 대통령의 헌신의 결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며 “국가보훈부 또한 조국의 독립과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을 기억하고 이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여 국민 통합과 국가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오늘날, 이승만 대통령의 해안과 리더십 필요**
정운찬 상임고문(전 국무총리)은 “이승만 대통령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조선 독립과 자유민주공화제를 신봉했고, 반공주의자면서도 평등사회를 추구했으며, 해방 후 우리 한국 사회에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커다란 선물을 안겨주었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경제적 양극화가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이고 그것을 공산주의가 아닌 자본주의적인 방법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동반성장은 이승만 대통령의 비전과 닮았다고 생각한다”며 “오늘날 세계는 미·중간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 여전히 전쟁이



이승만 건국대통령 탄신 150주년 기념예배 진행 사진.

이어지는 불안정한 국제 질서 속에 놓여 있다. 지금 우리에게 뛰어난 통찰력으로 혼란 속의 국제정치를 꿰뚫어 본 이승만 대통령의 해안과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미국과의 혈맹, 이승만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외교의 결과물**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재 대한민국은 극심한 정치 갈등과 국론 분열,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경제적 위기와 안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러셨듯이, 국가 정체성을 확고히 하여 국민을 통합하고, 외교적 결단력과 전략적 협상을 통해 국가의 이익을 지키며, 위기 속에서도 과감한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의 고립주의를 극복하고 맺은 혈맹은 7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유효하다. 이는 급속한 국제정세의 개편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헌신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치열한 외교의 결과물”이라며 “우리는 이를 이어받아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찾아 이뤄내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행 20:22~24)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손현보 목사는 “국권을 잃어버린 희망 없는 세월 속에서도 수십 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생명을 다하여 달려갈 길을 가셨던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라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우리의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어야 한다”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이찬수 목사가 ‘가짜뉴스’ 고발하려다 그만 둔 이유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가 23일 주일예배 설교에서 최근 정치적 상황 가운데 소위 ‘가짜뉴스’로 인해 답답함을 느꼈던 상황을 간증했다.

이 목사는 “요즘 정치적인 논쟁으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는다. 그러다 보니 모든 설교자들이 힘들다. 이렇게 설교하면 저분들이 교회 떠나겠다고 (하고), 저렇게 설교하면 또 이분들이 교회를 떠나겠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그래서 아예 언급을 안 하면 또 언급을 안 한

다고 양쪽이 다 뭐라 그런다고 한다. 목사님들마다 주일이 되면 너무 힘들다”며 “저도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의 불편함을 저 역시도 겪었다”고 했다.

이 목사는 “저의 약한 부분을 지적하고 또 충고하고 그런다면야 열 번 백 번도 더 제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라며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 항상 이렇게 끼어 들어오는 가짜뉴스를 만드는 분이 있다”고 했다. 그는 “제가 3주간 미국 집회를 마치고 인천공항에 내려 제

일 먼저 스마트폰을 열었을 때 먼저 받은 보고가 ‘목사님, 그 가짜뉴스를 듣고 성도가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였다”며 “역장이 무너지는 이야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초신자가 많은데, 한 사람 전도하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아니 그렇게 상황을 다 설명한 옛날 얘기를 또 끄집어내 가짜뉴스를 만들고 그것 때문에 ‘성도가 교회를 떠났다’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상했다”고 했다.

이 목사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는 그냥 안 넘어간다’, 아무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음모론자부터 시작해서 별의 별 걸 다 만드는 것”이라며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내가 짚고 넘어간다’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그 가짜뉴스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막으셨다”며 ‘(하나님의) 종에게 무슨 명예가 있느냐’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말씀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고 한다. 그리고 최근 새벽에 ‘한국교회에 예수가 안 보인다, 너도 마찬가지로’라는 깨달

음을 주셨다고. 그는 “그런데 어떤 결정이 나든 한쪽이 상처를 받고 다치고 눈물을 흘린다고 한다면 교회가 할 일이 있다”며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는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목사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해 대한민국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진영 기자

말씀 팔찌

손목 위의 은혜



간편하게
말씀팔찌에
핸드폰을 올리면
바로 성경경험이...

\$13.99

개인 및 소량 주문 웹사이트에서 구입가능
50개이상 단체주문은 전화해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교회 임직식, 창립 행사 선물 단체주문 상담환영

말씀팔찌에 핸드폰을 대기만 하면 하루의 성경 말씀이 펼쳐집니다!
원하는 로고나 글씨를 새길 수도 있어 특별한 선물이 됩니다.
교회 임직식, 창립 행사, 선물용으로 추천!

자녀들이 말씀과 가까워지는 특별한 방법!
간편하게 매일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 지금 경험해 보세요!



문의

기독교일보 정다혜 실장 (213-434-1170)
Email : chdailya@gmail.com
www.j1mart.com

매일 같이 반복된 학대... 하마스 인질 가족들이 밝힌 참혹한 감금 실태



하마스에 포로로 잡힌 사람들의 가족들은 지난 3월 11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패널 토론에서 나머지 인질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CP

2023년 10월, 하마스에 의해 납치된 이스라엘 인질들이 감금 중 겪고 있는 참혹한 현실이 인질 가족들의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일시적 휴전으로 일부 인질들이 석방되면서, 감금된 이들의 비인도적 처우가 다시금 조명을 받고 있다.

◆석방식조차 고통의 연장이었다

이스라엘 외무부와 국방군이 공동 주최한 한 패널 행사에서, 인질로 억류된 가이 길보아-달랄과 에비아타르 다비드의 가족들은 두 사람이 다른 인질들의 석방 방식을 억지로 지켜본 후, 다시 어두운 지하 터널로 끌려갔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10월 이후 500일 넘게 하마스의 감금 상태에 놓여 있다. 가이의 아버지 일란 달랄은 지난달 석방 행사에서 잠깐 아들의 모습을 확인한 것이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받은 생전 신호였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 가족은 16개월 넘게 마음에 큰 구멍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며, “하루빨리 모든 인질들이 자유를 되찾을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이 고통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하마스 공격의 피해 가족들, 참상 증언

이날 행사에는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를 기습 공격해 1,200여 명을 살해하고 240명 이상을 납치했던 테러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인질 가족 수십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각자의 가족들이 감금 중 겪고 있는 상황을 생생히 전하며 국제사회의 관심과 대응을 촉구했다. 가이 길보아-달랄은 당시 친구들과 함께 노바 음악 페스티벌에 참석했

며, 현장에서 동생 갈 길보아-달랄과 합류했지만, 하마스의 무차별 공격이 시작되며 형제는 헤어졌다. 같은 간신히 생존해 납치를 피했지만, 가이와 친구 에비아타르 다비드는 숨으려다 하마스에 붙잡혀 현재까지 억류 중이다.

일란 달랄은 감금 중인 인질들의 상황이 날이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들은 대부분 시간을 쏙고 어두운 터널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지내고 있으며, 극심한 굶주림 속에서 매일 같이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들의 마지막 목소리 “아버지, 사랑해요”

또 다른 피해자 가족 미셸 일루즈는, 하마스에 납치된 뒤 부상으로 숨진 아들 가이 일루즈의 마지막 순간을 회상하며 슬픔을 전했다. 그는 하마스 공격 당일 아들과 나눈 마지막 통화 녹음을 공개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총성 속에서, 아들은 히브리어로 “아버지, 사랑해요”를 반복했다. 미셸은 “그 순간, 나는 아들에게 ‘우리를 떠나지 말라’고 말했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인질들의 생존 위한 국제사회 연대 호소

이날 인질 가족들의 증언은 하마스의 비인도적인 억류 실태를 고발하는 동시에, 아직 감금 상태에 놓여 있는 수많은 인질들의 조속한 석방을 강력히 촉구하는 외침으로 이어졌다.

홍은혜 기자

“라틴아메리카, ‘피선교지’에서 ‘세계선교 주체’로”



▲2017년 8월에 열린 제4회 이베로-아메리카 선교대회. ©코미밤 인터내셔널 페이스북

‘이베로-아메리카 선교 협력체’(Cooperación Misionera Iberoamericana, 이하 COMIBAM)는 라틴아메리카가 ‘피선교지’에서 ‘세계적인 선교 주체’로 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COMIBAM의 크리스티안 카스트로(Cristian Castro) 대표는 최근 크리스천 데일리인터내셔널(CDI)과의 인터뷰에서 “교회와 목회자가 선교에 참여하지 않으면 선교는 발전하지 않는다”며 “우리의 목표는 대규모 모임이 아닌, COMIBAM이 가진 사명의 미래를 계획하고 구축할 수 있는 전략적 회의를 여는 것”이라고 했다.

COMIBAM은 1987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제1회 이베로-아메리카 선교대회에서 탄생했다. 이 행사에서 루이스 부시(Luis Bush) 목사는 “라틴아메리카는 더 이상 ‘피선교지’가 아닌 ‘세계선교의 주체’가 되고 있다”며 선교의 전환점을 알렸다.

이후 COMIBAM은 25개국에 지부를 둔 교회와 조직, 선교단체 간 협력 네트워크로 자리매김했다. 1987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1,600명의 라틴계 선교사가

활동했으나, 2017년에는 그 수가 22,000명으로 증가했다.

1987년 대회 이후 COMIBAM은 선교사 훈련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한 ‘아카폴코 1997’, 세계 선교의 전략 지역으로서 유럽의 중요성을 강조한 ‘그라나다 2006’, 1,700명의 지도자를 대상으로 선교사 리더십을 강화한 ‘보코타 2017’ 등 주요 행사를 진행해 왔다. 또 선교사 연구관측소를 개발해 현장의 선교사, 파송 단체, 수용 교회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선교 전략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 데이터를 제공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 목회자 중 6%만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3%만이 미션트립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COMIBAM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도 다음세대를 선교에 동원하는 것이다. 또 이주와 디아스포라 역시 중요한 이슈다. 수백만 명의 라틴아메리카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함에 따라, COMIBAM은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는 기독교 공동체를 이해하고 선교에 동원하고자 한다.

강혜진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장년기초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영혼의 섬 내적치유 영성집회
- 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김성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내세대에 오전 9:15)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회 온라인 오후 8시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만2세를 책임지며, 이만2세를 치료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Olympic & Edson 코너)
T. (213)386-2233

김기섭 담임목사



주일예배
금요일씀과 삶 공부
아침말씀예배(월-토) 오후 9:00

오전 10:50
오후 7:00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씨니킴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50
청소년예배 오전 10:5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토요일전새벽예배 오전 6:30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한천영 담임목사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오후 2:00
오후 7:30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엘리아 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진유철 담임목사



주일예배
교육부예배
EM예배
청년부예배

오전 7:30, 9:00, 11:00
오전 11:00
오전 11:00, 9:30
오후 1:30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박은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EM Worship Sunday 2:0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를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김일형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분당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분당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O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OMC 중등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OMC 소년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주요 중보기도회 오전 10:00 분당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466-1234 Email: omccoffee1@gmail.com

김지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EM Worship Sunday 2:0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를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김일형 담임목사



주일예배
금요일예배
새벽예배

오전 11:00
오후 7:30
오전 5:30(화-토)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강지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새벽기도회

오전 11시
오전 6시(금, 토)

영생교회

1829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2-7356

김재연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이수호 담임목사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매일 오전(1도회): 9-11시
매일 저녁(1도회): 8-10시

라디오 방송설교
라디오서울 AM 1560
주일 아침 6시
주일 아침 8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매일 오전(1도회): 9-11시
매일 저녁(1도회): 8-10시

라디오 방송설교
라디오서울 AM 1560
주일 아침 6시
주일 아침 8시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서사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라틴노 오후 5:00

GOEM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신승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온라인

김창섭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com

김창섭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0:50

한국학교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토요일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0:50

한국학교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토요일새벽 오전 6:00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 (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고광선 담임목사



주일예배
중고등부 성경공부
대학청년부 성경공부

오전 10:30
주일 오전 9:30
주일 오전 9:30

한현종 담임목사

주일예배
중고등부 성경공부
대학청년부 성경공부

오전 10:30
주일 오전 9:30
주일 오전 9:30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한현종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EMI대청 오후 1: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30 (토)

곽부환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EMI대청 오후 1: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30 (토)

한마음제자교회
심자기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곽부환 담임목사



주일 오전 10:00 하툰교회
4500 W. El Segundo Hawthorne, CA 90250
Tel. 310-706-7721

주일 오후 1:00 가든그로브한인교회
13411 S. Euclid St, Garden Grove, CA 92843

주일 오후 7:00 웨스트교회
439 S. Western Ave, LA, CA 90020

진건호 담임목사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기독일보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유종중보부 예배 오전 8:4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6:20(토)

이호민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유종중보부 예배 오전 8:4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6:20(토)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이호민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취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항영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취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cs.com

이항영 담임목사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윤성현 담임목사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김경한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M장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c.org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O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EM예배 11:00am
주일2부예배 9:30am 수요찬양집회 7:30pm
주일3부예배 11:15am 토요새벽예배 6:00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정유성 담임목사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c.org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잔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여대학창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가든구국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대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종교기도회 오전 9:30(목)
제자성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반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종교동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여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박신웅 담임목사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금)
수요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i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1부예배 오전 0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성급한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청년/교육부서) (토/주일) 새벽 6:00

김종규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ister, CA 92683
T. (714) 899-9191 / oc1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 1부예배 8:00 AM 금요찬양예배 7:45 PM
주일 2부예배 11:00 AM 교회학교예배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 6:00 AM

신용환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15-4020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EM(Holy Wave) 오전 9:40 금요영성집회 저녁 7:30(금)

유영화 담임목사

LA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1부예배 오전 7:45 종교동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고송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5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20 (토) 오전 6: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7: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로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美 복음주의 지도자들,
백악관서 트럼프 대통령 위해 기도



미국 복음주의 지도자 12명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JDA Worldwide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복음주의 지도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만남을 갖고 기도를 받았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트럼프의 오랜 영적 고문인 백악관 신앙사무소 수석고문 폴라 화이트 케인(Paula White Cain) 목사를 비롯한 교계 지도자들이 19일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다. 참석자 중에는 전미히스패닉지도자콘퍼런스의 사무엘 로드리게스(Samuel Rodriguez) 목사, 델러스 제일침례교회의 로버트 제프리스(Robert Jeffress) 목사, 앨라배마 패스웨이교회 트레비스 존슨(Travis Johnson) 목사, 윌버더스의 데이비드 바트론(David Barton), 전 대선 후보이자 오랜 보수주의 활동가인 게리 바우어(Gary Bauer), 침례리더십센터 윌리엄 울프(William Wolfe) 사무총장도 포함됐다. 이 자리에서 지난 2017년 트럼프의 첫 취임식에도 참석했던 로드리게스 목사가 대통령을 위해 기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드리게스 목사는 이후 CP에 다음과 같은 기도문을 공유했다.

“감사와 겸손으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께서 그를 임명하셨고, 지금과 같은 때를 위해 기쁨을 부으셨습니다. 당신께서 그를 예수님의 피로 덮어 주시고, 그가 의와 정의, 진리와 사랑의 여젠다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가 우리 유대-기독교 가치 체계의 방화벽으로 미

국을 지탱하는 동안, 그를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그의 삶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뤄 주십시오. 우리는 그의 지도력을 통해 미국에서 이사가 58장 8절 말씀이 성취되기를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구원은 새벽과 같이 올 것이고, 상처는 빨리 아물 것입니다. 경건은 우리를 앞으로 인도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뒤에서 보호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드리게스 목사는 CP와의 인터뷰에서 “백악관 신앙사무소에서 화이트 케인 목사, 제니 콘(Jenny Korn) 대통령 특별보좌관과 협력해 진행 중인 놀랍고, 중요한 일을 지원하게 돼 영광”이라며 “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기독교인들과 라틴계 공동체를 대변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그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오벌 오피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 회동을 가졌다. 로드리게스 목사는 “우리는 신앙에 기반한 정책, 이니셔티브, 그리고 전략적 계획에 집중했고, 그것이 모임의 초점이었다”며 “오벌 오피스에서 가진 시간은 매우 우호적이었고, 대통령과 교감하며 기도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취임 2주 만에 참석한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백악관 신앙사무소 창설 계획을 처음 알리고, 2월 7일 내린 행정명령에서 그 비전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백악관 신앙사무소의 설립 목적이 반기독교적 편견에 맞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준 기자

나이지리아 4개 주, 라마단 기간
모든 사학 폐쇄... 교계 지도자들 반발



▲나이지리아기독교협회 회장 다니엘 오코 목사. ©나이지리아기독교협회

“교육 시스템 침식하고 국가적 통합 위협”

나이지리아 기독교 지도자들은 북부 4개 주의 무슬림 주지사가 라마단을 위해 모든 학교를 5주 동안 폐쇄하기로 한 결정을 비판했다.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에 따르면, 나이지리아기독교협회(이하 CAN)는 “바우치, 카치나, 카노, 케비 주에서 모든 공립 및 사립학교를 폐쇄하기로 한 결정은 이미 절름발이가 된 교육 시스템을 더욱 침식하고 국가적 통합을 위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CAN 회장인 다니엘 오코(Daniel Okoh) 대주교는 최근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2월 말부터 4월 초까지 라마단 금식을 지키기 위해 최대 5주 동안 모든 학교를 폐쇄하기로 한 결정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CAN은 종교 간 조화를 증진하는 데 전념하고 있지만, 라마단을 지키지 않는 학생과 가족의 권리 침해 가능성과 공평한 거버넌스에 대한 위험한 신호를 간과할 수 없다”고 했다.

오코 대주교는 “다양한 인구(이슬람교도, 기독교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부모, 교육자, 종교 지도자, 학교 소유

주와의 투명하고 포괄적인 대화를 요구한다”며 “그러한 참여의 부재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신뢰와 단결을 침식한다”고 했다. 이어 “이슬람이 중심이고 라마단을 깊이 존중하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나라들조차도 금식 기간 내내 학교를 폐쇄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일정을 조정하고, 근무 시간을 단축하거나 유연성을 제공하여 교육과 종교적 실천의 균형을 맞춘다”며 “이 이슬람의 심장부가 이러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면, 나이지리아 북부 주들은 비슷한 실용주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 달, 또는 바우치의 경우 5주간 폐쇄는 지나치고 상식적인 선례에서 벗어난다”고 우려했다.

그에 따르면, CAN은 발라 모하메드, 디코 우마르 라다, 아바 카비르 유수프, 나시르 이드리스 주지사에게 종교단체, 학교 소유주, 학부모, 시민사회 등 주요 이해 관계자와 대화 채널을 열어 이러한 지침을 재평가하고 포괄적인 해결책을 추구할 것을 요청했다.

오코 대주교는 “우리 자녀의 교육과 우리 주의 통합이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권리가 더 큰 위험에 처하거나 대화가 정의를 실현하지 못할 경우, CAN은 교육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지 명령을 받는 것을 포함해 법적 구제 수단을 모색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그는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정의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약화시키지 않는다. 나이지리아인으로서는 단결해, 신앙과 진보가 조화를 이루고, 어린이의 교육이 훼손되지 않고, 모든 커뮤니티가 소중히 여겨지는 사회를 만들어 보자. 주지사들에게 공정성과 국가적 응집력의 정신으로 이러한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해진 기자

일리노이주 중학교, 남녀탈의실 공유 강요 논란



▲2025년 3월 13일 일리노이주 디어필드 학군 109 학군 위원회 회의에서 연설 중인 니콜 조르가스. ©유튜브 영상 캡처

미국 일리노이주에 위치한 중학교 직원들이 10대 여학생들이 남학생과 탈의실을 공유하기를 거부하자, ‘자신을 여자라고 밝힌 남학생’ 앞에서 옷을 갈아입으라고 강요해 논란이 되고 있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학부모 니콜 조르가스(Nicole Georgas)는 13일 열린 디어필드 학군 109 학군위원회 회의에서 13세 딸의 이야기를 전했다. 그녀는 “세퍼드중학교에 다니는 10대 자녀가 지난 2월 5일 여자화장실에 들어온 남학생 때문에 ‘겉먹고’ ‘매우 화가 났다’고 했다. 학교에 연락했더니 ‘그 남학생은 자신이 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자화장실을 사용하고 여자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을 수 있다’는 답변을 이메일로 보내 왔다”고 했다.

그녀는 학교 관리자들에게 이러한 조치가 남성의 여성 스포츠나 공간 사용을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알렸고, 딸을 대신해 연방 시민권 소송을 제기했으며, 해당 소송은 이사회 회의에서 미 교육부에 회부됐다.

그러나 그녀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를 취한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고. 그녀는 “며칠 후, 남학생이 여자탈의실에 있었다. 침해를 받았다고 느낀 여학생들은 ‘생물학적 남자 학생’이 있는 환경에서는 체육복으로 갈아입지 않기로 선택했다”고 했다.

신미헬 기자

‘목회자가 된 복싱 세계 챔피언’ 조지 포먼, 76세로 별세



▲조지 포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세계 헤비급 복싱 챔피언이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으로 목회자가 된 조지 포먼(George Foreman)이 지난 3월 21일(이하 현지시각) 76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포먼의 유족들은 “깊은 슬픔과 더불어 사랑하는 조지 에드워드 포먼 시니어의 죽음을 알린다. 그는 2025년 3월 21일 사랑하는 이들에게 둘러싸여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이어 “인도주의자이자 올림픽 선수, 세계 헤비급 챔피언 2회에 빛나는 그는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다. 그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자 규율과 신념을 지닌 사람이었으며,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싸웠다. 우리는 넘치는 사랑과 기도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포먼은 2023년 CP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푸에르토리코의 한 탈의실에서 처음으로 복음의 진실을 이해하게 됐다. 난 죽었다. 내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난 허무함을 응시했다. 희망도 없었다. 이 더러운 곳에서 끌려나와서 살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얻었다. 그것이 나를 땅에 붙잡아 뒀다”고 했다. 그는 “인생의 어느 지점에 도달하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자가 되는 것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전도’는 인생에서 너무나 강력한 단어였다. 내일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가 좋은 일을 했다

13일 디어필드 학군 109 이사회 회의에는 여러 트랜스젠더 활동가와 성소수자 운동가들도 참여했는데, 성소수자 티나 넬슨은 “‘백인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학군 내에서 여자로서 자처하는 남학생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넬슨은 “증오하고, 비방하고, 두려움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키운 아이들은 동료들을 미워하고, 비방하고, 두려움을 조장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매우 중요하고, 성교육도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학 수영 선수였던 라일리 게인스는 트랜스젠더 선수인 리아 토마스와 라커룸을 공유하면서 겪은 불편함에 대해 털어놓은 바 있다. 게인스는 전미 대학체육협회가 2022년 여자 수영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도록 허용한 후 토마스와 경쟁해야 했다. 토마스와 라커룸을 공유했던 게인스와 다른 여자 선수들은 “그가 여전히 남성 생식기를 지니고 있었다”고 했다.

펜실베이니아대학교에서 토마스의 팀 동료 중 한 명이었던 폴라 스캔런에 따르면, 학교는 소녀들에게 팀 내 남자 선수에 대해 불평하지 못하도록 위협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캔런은 “남자 선수가 여자 수영팀에 합류한 후, 많은 여자 선수들이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다”며 “이는 토마스가 합류하기 전에는 한 번도 없던 일”이라고 했다.

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 행복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세상에 전하려고 노력한다”고 했다.

그러나 성공적인 복싱 경력, 그리고 목회를 향한 포먼의 길은 결코 쉽지 않았다. 1949년 텍사스주 마샬에서 태어난 포먼은 일곱 자녀 중 한 명으로 어린 시절 불안정, 폭력, 빈곤을 겪었다. 그는 10학년 때 학교를 중퇴한 후 휴스턴 거리에서 알코올 남용과 폭력 범죄에 가담하기 시작했다. 그는 1965년에 휴스턴을 떠나 캘리포니아에 있는 Job Corps로 갔다. 이 프로그램은 불우한 청소년에게 직업 기술을 가르쳐 그들을 돕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바로 이곳에서 Job Corps 상담사이자 권투 코치였던 닥 브로드두스(Doc Broadbuss)가 포먼에게 권투를 통해 분노를 표출하도록 격려했다.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뒤 프로 권투선수가 된 그는 1973년 무패의 조 프레이저를 꺾고 세계 헤비급 타이틀을 획득했다. 그러나 그는 1974년 ‘정글의 법칙’에서 무하마드 알리에게 그 타이틀을 잃었다.

1977년 포먼은 신령한 체험을 통해 주님께로 인도된 후 복싱계에서 은퇴했다. 여생을 복음을 나누며 보내기로 결심한 포먼은 목사가 됐고, 1980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설립했다. 그러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다시 링으로 올라갔다. 1994년 그는 10라운드에서 챔피언 마이클 무어를 꺾고, 45세에 헤비급 챔피언을 차지한 최고령 선수가 되었다. 마이크 타이슨은 자신의 X 계정에 “조지 포먼의 가족에게 애도를 표한다. 권투와 그 너머에 대한 그의 헌신은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명예의전당 NBA 선수 찰스 바클리는 “그는 분명히 역대 최고의 권투 선수 중 한 명이었지만, 그저 온화한 사람이었고 목사였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철야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월-금) 05: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예배 06:00AM
-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대예배 11:00 AM Youth (9th ~ 12th) 11:00 AM
아동부 (1-5학년) 11:00 AM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 7:30 PM
유아, 유치부 (2-5세)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영아부 (2개월 이하) 11:00 AM

장수영 담임목사

언약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주일예배(KM) 오전 10:30 중·고등부(Youth) 오전 10:30
주일예배(DM) 오전 10:30 대학청년부(College) 오전 10:30
유년부(K-2) 오전 10:30 한글학교 주일 오후 12:40
초등부(3-5) 오전 10:3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최현규 담임목사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9 Email : joonim0623@gmail.com

예배시간 매주오전 11:00

강문수 담임목사

로렘나무교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3133 Le Parc #1003, Chino hills, CA 91709
T. (909) 519-0876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 2부 오후 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동아요 내 길에 빛이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중·고등부(아카데미) 오전11: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영아부예배(민음체움)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6:00
초등부 오전11:00 Youth 금요모임(금) 오후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아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일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중·고등부 9:30AM/11:15AM
주일 2부 9:30AM 수요일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월-토 5:30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손창민 담임목사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영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화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이건창 담임목사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Newhall, CA 913211
Tel. (661)219-5434 www.sammmool.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영성집회 저녁 7: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토 오전 6:00
주일 3부 영아예배 오후 1:30

이충환 담임목사

주안에 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교육부예배 주일 오전11:00
수요일예배 저녁 7:0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예배 오후 7:00
토요새벽 오전 5: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10:15 (한국어, 스페리쉬)
주일예배 3부 오후12:15 (한국어, 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강일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11:30 수요일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11:30 새벽예배(화-목)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3225 S Rainbow Blvd #200, Las Vegas, NV 89146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송상용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교육부예배 오전11:00
수요일참회기도회 오후 7: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7:00 E.lvkchurch@gmail.com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주일예배 오전 9:00, 오전 11:00(설교 동시통역)
금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일예배 7:00 PM
새벽기도회 화-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우리종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wooriojeunchurch.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크리스천 비즈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25
E-Mail: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래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데레스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수능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슈비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어마의 정성이 한 가득 ~
이리 주문해 주세요!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NATURE'S TREASURE

Innervis NUTRITION

건강을 선물하세요



- 기억력 개선
- 피로 회복
- 면역력 강화
- 항산화 작용
- 혈액순환 개선

5 

목 넘김이 쉬운
비타민 D3 5,000 IU
120 캡슐을 캡슐 \$8.80
D3 5,000 IU 선사인 비타민 D
햇빛을 보지 않고,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비타민D 결핍을 보충해 줍니다.

6 

당신의 건강과 부티를 위한 필수 영양소
필수영양소 비타민(C와 칼슘, 그리고 노화
방지, 피부 개선, 항바이러스 등의 효능을
가진 로즈힙까지 함유된 제품입니다.

9 

면역력
120 타블렛 \$11.99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로즈힙을 사용하여
제조된 강력한 면역력 개선 제품입니다.
신체 면역계의 다양한 세포 기능을 지원해
중요한 면역력을 기본부터 끌어올려 줍니다.

전화구매

213-434-1170

GAWPC 남가주노회 멕시코 크루즈 선교여행 다녀와

세계예수교장로회총회(General Assembly of World Presbyterian Church, GAWPC) 남가주노회(노회장 정요한 목사)가 3월 2일(주일)부터 6일(목)까지 4박 5일간 멕시코 엔세나데 카니발 크루즈 선교여행을 다녀왔다.

선교여행 중 선상예배와 건강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345장 찬송(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불 때)과 박종대 목사의 설교(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막4:40~41)로 선상예배를 드리고, 박만서 장로가 건강세미나를 이끌었다.

정요한 목사는 “지난 2008년 김재연 목사의 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 시절에 처음으로 크루즈 여행을 한 후, 기회가 되면 선배 목회자들을 함께하는 크루즈 여행을 꿈꿔왔다. 남가주노회 산하 선교사, 선배 목사

멕시코 엔세나데에서 타고온 카니발 크루즈를 배경으로 기념촬영하고있는 모습. ©GAWPC 남가주노회

들이 많이 참석하지 못해 아쉽지만, 의 이정표를 갖게 되어 감사할 따름이다”라고 했다. 김민선 기자

김학준 건강세미나, 시니어들 큰 호응

센터메디컬그룹 후원 토렌스제일장로교회서

지난 20일(주일) 오전 11시, 토렌스제일장로교회에서 시니어 월례회 예배 후 약 100여 명의 시니어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건강 세미나는 센터메디컬그룹 소속 김학준 가정의학 전문의가 시니어들에게 꼭 필요한 ‘약’에 대한 정보를 나누어 큰 호응을 얻었다.

김학준 주치의는 시니어들이 자주 복용하는 약 중 남용 우려가 있는 약물, 함께 복용하면 위험할 수 있는 조합, 피해야 할 약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세미나 전 참석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건강 체조를 하며 열기를 더했고, 강의 내내 질문과 응답이 이어지는 등 뜨거운 관심 속에 행사가 진행됐다.

토렌스제일장로교회에서 시니어 월례회 예배 후 건강 세미나가 열렸다. ©센터메디컬그룹

이날 행사는 센터메디컬그룹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참석한 시니어 전원에게 다양한 선물이 담긴 구디백과 함께 정성껏 준비된 떡 도시락이 제공되었다.

강의를 맡은 김학준 주치의는 미 항공 군의관으로 오랜 기간 근무한 풍부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토렌스 지역에서 시니어

전문 주치의로 활동하고 있다. 센터메디컬그룹은 한인 메디컬 그룹 중 유일한 시니어 전문 메디컬 그룹으로, 65세 이상 시니어를 위한 무료 병원 라이드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가입 및 문의는 888-847-3098로 하면 된다. 센터메디컬 그룹 기사 제공

2025 두 번째 학기 접수 3월 26일 시작

3월 26일(수)~28일(금)
10시~2시 (선착순 마감)

한인타운 시니어&커뮤니티 센터(이사장 신영신, 이하 시니어센터)는 2025 두 번째 학기(4~6월) 커뮤니티 봉사 프로그램 접수를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

반드시 본인이 사전 접수해야 참가 가능하며, 각 과목별 선착순 마감한다. 커뮤니티 센터이므로 18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접수는 3월 26일(수)부터 3월 28일(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시니어센터 1층 정문서 받는다.

새 학기에는 음악교실, 태극권, 판소리, 영어스피킹, 라틴댄스, 영어신문읽기 등 6 과목이 신설된다.

한인커뮤니티 변호사협회(회장 알리사 김 샤블로스키) 주관으로 매월 첫 번째 목요일 <법률상담>, 매주 수요일 1대 1 <소셜워커상담>, 발달장애인을 위한 <나눔교실>,

시니어 센터 수강생들이 댄스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ksocla.com

LA카운티 정신건강국 주관 <시니어수다방>, 중-고교 청소년을 위한, 오픈뱅크가 진행하는 <똑똑한 금융>, 매월 첫 번째 화요일마다 어르신들 머리를 무료로 깎아 드리는 <헤어커트>는 이번 학기에도 계속된다.

이로써 2025 두 번째 학기에는 재능기부 자원봉사에 나선 교수님들의 헌신으로 총 47개 과목이 알차고 다양하게 펼쳐진다.

신영신 이사장은 “교수님들의 헌신적 봉사와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면서 “새 학기엔

어르신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영어와 건강을 돕는 댄스과목 개설에 힘써 각 6개 씩(영어= 영어회화기초, 생활영어, 영어스피킹, 영어신문읽기, 스크린영어, 시민권영어) (댄스= K시니어댄스, 트롯댄스, 라라댄스, 한국무용, 실버발레, 라틴댄스) 클래스를 오픈한다. 원하시는 것을 준비해 다양한 기회를 드리므로써 노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치매 예방에도 좋은 효과가 나타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된다. 시니어센터 기사 제공

최인혁 목사 초청 VIP 찬양예배

“남가주 VP 성도들을 위한 찬양과 말씀 축제”

라 미라다/위티어(La Mirada / Whittier)에 위치한 가스펠교회(김정호 목사)는 오는 4월6일 주일 오전 11시, 최인혁 목사 초청 찬양예배를 개최한다.

한국 CCM 계의 1세대, 작은 거인이라 불리는 최인혁 목사는 종신 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예수전도단 간사 및 찬양 인도자의 길을

걸어왔다. 최 목사는 전 CBS ‘꿈과 음악사이에’ ‘가스펠 아워’ 진행한 바 있고, 전 예문 기획 창립자, 다솔기획 대표로 헌신해 왔으며, 현재 월드비전 친선 대사로도 활동하며, CBS Joy4u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면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예배는 모든 이들에게 열린 예배로, 특별히, 교회를 멀리하게 된 VIP 성도들을 초청하여 찬양과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굳게 다지게 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장소 : 가스펠교회 (10005 Cole Rd, Whittier CA 90603) 문의 : (657) 253-8561

■ ■ ■ 선교 칼럼

라이프 스타일



최 민 기 선교사

세계한인재단 과테말라 선교본부장

대학 졸업 후 작은 무역 회사에 취직했다. 첫 직장이었기에 열심히 일했다. 당시 2000년대 중반으로 야근이 빈번하고 퇴근 후에도 술자리가 자주 있었다.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사장이 나를 따로 불렀다. 그리고 “라떼는 말야...”라고 긴 조언을 시작했다.

“너 명문 대학 출신이냐?”/ “아니요.”
“너 외국어를 잘하는 것 있어?”
“없습니다.”
“너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니?”
“아니요.”
“그럼 내가 널 왜 뽑은 것 같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가능성을 보았거든.”
“?...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말이야, 모두가 열심히 한다. 지금 네가 일할 때 SKY출신들도 다 열심히 일하고 있어. 너는 그들과 출발선이 달라! 100M 달리기라면 10M 앞에서 출발한 애들이란 말이야! 너 평생 그들한테 뒤처지면서 살 거야? 평생 뒤처다꺼리나 하면서

살 거냐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

“잘 모르겠습니다...”
“너처럼 뺏고 없고 돈도 없는 애들이 이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야.”
“무엇인가요?”
“그들이 잘 때, 쉬 때, 아플 때가 기회야! 그때 너는 2배로 뛰어야 해, 쉬지도 아프지도 말아야지! 그럼 언젠가는 따라잡을 수 있어!”
“?!”

그때는 몰랐다. 사장의 말이 가스라이팅이란 것을...

이러한 삶의 방식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집트의 라이프스타일”이다. 이집트 땅은 기름진 땅이었다.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이다. 나일강에서 물을 퍼다 나르면 일한 만큼 농사를 더 지을 수 있다. 더 많은 일꾼을 고용하여 물을 대고 땅을 개간하면 더 많은 부를 쌓을 수 있다. 일한 만큼 돈이 나오니 성공하기 위해서는 잠을 잘 시간도 없다. 마음 편히 쉬지도 못한다. 함부로 아플 수도 없다. 쉬는 만큼 뒤처지고, 자는 만큼 늦어지고, 아프면 도태되는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을 살았다. 이러한 ‘이집트의 라이프스타일’이 수십 대를 이어졌고, 뼈 속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DNA로 자리 잡은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하루아침에 그 삶을 떠나야 했다. 이것이 “출애굽(이집트 탈출)”이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라이프스타일’을 ‘가나안의 라이프스타일’로 바뀌어야 했다. 가나안 땅의 라이프스타일

은 무엇이었을까? 먼저 가나안이 어떤 땅인지 알아야 한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가나안)은 네가 나온 애굽(이집트)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밭으로 대기를 채소밭에 담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가나안)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신명기11:10,11)
가나안 땅은 이집트 땅과 달리 물을 담아둘 수 없는 땅이었다. 한마디로 적절한 때 비가 내려야만 농사에 성공할 수 있는 땅이다. 이집트 땅처럼 잠을 자지 않고, 쉬지 않고 일한다고 해서 더 많은 수확을 얻는 땅이 아니었다. 한마디로 할 수 있는 일을 끝낸 후에는 그저 하늘을 바라보며 비가 내리지만 바래야 하는 것이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기 그지없는 땅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은 이집트 땅이 아닌 가나안 땅이라고 하신다. 왜 그러실까?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땅이기 때문이다.

가나안 땅의 ‘라이프스타일’은 철저히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다. 뺏고 없고 돈 없고 지식이 부족한 자도 풍성히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라이프 스타일이 게으르고 놀고 쉬기만 하면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는 조건이 있었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신명기11:13)
선교사의 삶이 꼭 가나안의 삶의 방식

같다. 주어진 선교의 일을 성실히 해야 하겠지만, 모든 공급은 선교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다. 하나님은 모든 교회와 동역자들을 통해 선교사를 먹이신다. 후원으로 사는 삶은 세상의 관점에서는 가장 멧없는 삶이다. 때로는 치사하고 비참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불편해하는 나는, 후원받는 삶이 정말 성격과 체질에 맞지 않는다. 차라리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삶이 공평하고 편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그러한 삶보다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 복되다고 말씀하신다.

그렇다. 선교사들은 이미 알고 있다. 일을 많이 한다고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란 걸... 하나님은 마음을 보고 중심을 보신다는 걸... 하늘을 보며 기도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도 하루를 마치며 과테말라의 하늘을 올려다본다. 구름으로 얼굴을 살짝 가리고 계산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 오늘도 단비를 준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를 기다리는 삶이 저에게는 고통이지만 이것이 하나님 원하는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 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땅에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삶과 사역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응답하신다.
“계절에 따라 비를 내려 줄 것이니, 복의 비가 내릴 것이라” (에스겔 34:26)

■ ■ ■ 김영한 칼럼

사순절 문화적 금식 및 절제 실천하자



김 영 한 박사
기독교학술원

사순절은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를 애 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간절히 구함으로 신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에 필요한 영적 변화와 성장의 기회를 가지는 기간이다. 40일간은 특별히 그동안 죄의식을 가지면서도 해

결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지나쳐 온 죄나 은밀하게 행한 죄를 회개하며 새사람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기간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자신 안에 있는 어찌할 수 없는 죄성을 슬퍼함으로 옛사람(죄성)을 벗어 버리고 새사람(의의 본성)의 옷으로 갈아 입는 성화의 삶을 훈련하는 기간이다(엨4:22-24). 오늘날 우리나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국론이 분열하여 찬성과 반대 국민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이 가운데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고 상대방의 입장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자기중심 태도가 자리잡고 있다.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의 죄와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깊이 회개하며 중보 기도하는 길로 나아가겠으면 한다.

대한민국이 역사 이래 오늘 시대만큼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선 나라가 되었던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은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기보다는 우리나라를 헬조선(hell朝鮮)이라고 부르면서 세계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시대만큼 탐욕과 과소비 향락이 만연한 시대도 찾기 어렵다. 기독교인들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기까지에는 기독교와 신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오늘날 대한민국에 만연한 국가적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도 교회의 책임의식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순절 기간동안 기독교인들은 금식과 특별새벽기도 등 영적인 절제와 청빈의 삶을 실천하자. 그러나 거기에 더해 음식과 의복 그리고 생활방식 등에서도 비싸고 화려한 것들을 피하는 등 육적인 절제와 청빈의 삶도 실천하도록 노력하자. 이를 위하여 육체적 쾌락과 만족을 구하는 오락이나 유희 향락을 피하고 문화적 금식을 함으로 영적 육적 경건의 훈련을 했으면 한다. 탐욕, 과소비, 향락을 멀리하고 물질적 금식뿐 아니라 문화적 금식을 실천하자. 가난한 이웃, 소외계층, 외국인, 탈북민을 돌아보아 구제에 힘쓰자.사순절 기간 동안 교회와 신자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낮아짐의 의미를 기억함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들을 돌아보아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도록 노력했으면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실직자 가족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 고아, 독거노인, 가출 청소년, 청소년 가장, 노숙자, 쪽방촌 등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민, 탈북민 등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과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 또는 이들을 지원하는 단체들을 찾아 사랑의 나눔과 구제를 실천하자.

우리의 북한 동포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중동 가자지역에서 고통당하는 이재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전쟁과 살육과 재난 속에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작은 것들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도록 힘썼으면 한다.

2025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오픈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목회학박사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철학박사(Ph.D)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 ks@mbts.edu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의 새로운 이름

SINCE 1977

* 전세계 온라인으로 온 캠퍼스와 실시간 수업가능 *

- 1977년 설립된 이후 지켜온 선교 지향적 교육을 토대로 다양하고 폭넓은 미래지향적 교육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 최장단: 효율적인 온, 오프라인, 블렌디드 교육 플랫폼 제공
- 과정: 과정에 따라 영어, 한국어, 중국어 프로그램 (학사, 석사, 박사)
- SEVIS 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미국연방 인가된 학교
- 홈페이지 www.ptsa.edu | 입학문의 562.926.1023 (ext 300)

15605 Carmenti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증
-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909-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학(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626)3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lis.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i.aurahelio@gmail.com

전화 1 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선교학 석사
- Th.M 신학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 (626) 653 9547 EXT.# 112/admin.korea@itsla.edu

PEMF 와 Tera Hertz 테라헤르츠가 만나다! 테라 P-90
세계 최초의 최첨단
신기술을 이용한 30분의 기적!
무료체험하러 오세요!



자연요법, 대체 의학, 예방 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 전문가들의 추천

우주인에게 사용되는 PEMF, 생명의 빛 테라헤르츠파로 생성된 올리라이프 테라P-90
PEMF(지구자기장) + THz(빛 파장) + Earthing (땅 에너지) 가 결합된 제품

- 1. PEMF 전자기 펄스를 발생, 발바닥에서 온 몸으로 열에너지 전달 혈액순환촉진에 도움
- 2. 테라헤르츠파가 피부에 침투하여 인체의 미세순환을 활발하게 해주는데 도움
- 3. 땅에 어싱한 것처럼 전자를 유입하여 활성산소를 중화하는데 도움을 줌

PEMF란?

지구자기장으로 NASA에서 우주인의 건강을 위해서 개발된 기술이기도 합니다.
우주에서 장기간 머무는 비행사들은 지구자기장의 영향권 밖에 있기 때문에 뼈와 근육의 손실이 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주비행사들의 회복을 위해 사용되어 왔습니다. 10여년 전만해도 지구로 귀환하는 우주비행사들은 90일간 PEMF를 받아야 했습니다. 우주에서 머무는 동안 근육손실과 뼈의 악화 등에서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PEMF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테라P-90의 의미도 최소한 90일간의 PEMF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테라 P-90을 30분 사용시 얻을 수 있는 동일한 성과

- 2시간 운동 성과 (근육활성)
- 부항 20회 (혈액순환)
- 훈욕 1시간
- 땀 10회 (체온상승)
- 마사지 30회
- 피부 스킨링 60회 (리프팅)

테라 P90의 효과

- 세포에너지 생성에 도움
- 통증과 염증에 도움
- 피로에 도움
- 혈액순환과 산소공급에 도움
- 면역건강 보조
- 안티 에이징에 도움
- 신진대사에 도움
- 뇌건강과 인지능력 증가에 도움
- 시력향상에 도움
- 독소배출(림프)에 도움
- 우울증/스트레스에 도움
- 폐와 신장기능강화에 도움
- 수면장애에 도움
- 지방연소에 도움

FDA, SGS, OPMS, ISO 세계적으로 특허 및 승인 받은 제품 158개국에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제품 하나의 디바이스로 온가족이 함께!
테라헤르츠와 PEMF의 시너지, 최첨단 건강 혁신! 두 가지 혁신 기술의 만남으로 완벽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세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체험수기

“저는 한의사로서 다양한 치료법을 경험해왔습니다. 테라 P-90을 사용해본 결과, 정말 놀라운 효과를 느꼈습니다. 이 기기는 깊은 조직까지 침투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빠른 회복을 지원합니다. 특히 관절염 환자들에게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테라 P-90은 비침습적이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환자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 Y*** 한의사

“정형외과에서 테라 P-90을 도입한 이후,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수술 후 회복과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전자기장이 깊은 조직에 작용하여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며, 치료 효과를 빠르게 증진시킵니다. 실제로 환자들이 치료 후 더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면서, 테라 P-90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 J***** 정형외과 의사

“테라 P-90은 물리치료에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빠른 회복을 지원합니다. 제 환자들이 테라 P-90을 사용한 후, 통증이 줄어들고 운동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치료 세션에 테라 P-90을 포함시키는 것은 환자들의 재활 과정을 크게 개선시키는 방법입니다.” - M** 물리치료사

“피부과에서 테라 P-90을 사용하여 염증성 피부 질환과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자기장이 피부 깊숙이 작용하여 염증을 완화하고 세포 재생을 촉진시킵니다. 환자들의 피부 상태가 개선되고, 치료 후 회복 속도가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부 건강을 위한 혁신적인 치료 도구로 테라 P-90을 추천합니다.” - L** 피부과 의사

grace.olylifeglobal.com 웹사이트 주문 후 2주 후 물건도착
문의 213-434-1170 무료체험 (오시기전 예약필수 월~목 : 오전 11시 ~ 오후 2시)
3055 Wilshire Blvd #480 ., LA, CA 90010

* 건강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건강과 비즈니스 기회를 원하시면 지금 연락주십시오.

신학 칼럼

탈봇신학대학원의 어제 · 오늘 · 내일(2)



에드스테저 교수
캘리포니아대학원 학장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탈봇의 현재

탈북에는 현재 학부 및 대학원 과정에 학생 1,726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성경, 신학, 사역학 학사 학위는 작년 대비 14%가 증가하여 10년간 통계를 가장 많은 신입생이 입학하였습니다.

탈북신학교는 소속되어 있는 바이올라 대학교는 US News & World Report 에서 “최고의 대학교” 순위에서 최상위 레벨에 올려져 있습니다. 탈북이 최우수 대학교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교계가 세속적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은 우리로서의 변혁への 도전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탈북에서 배우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성경에 기초한 신념 아래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터득합니다. 이는 무너져 가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복음적 삶의 의미를 드러내는 결정적인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복음적 미래를 만드는 열매

탈북은 학생들에게 세계적인 수준의 신학 교육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탈북은 학생들의 영성 형성에 집중합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 가게 하는 데 주력합니다. 탈북은 적어도 네 가지 측면에서 오늘의 도전에 응전할 태세가 갖추고 있습니다.

1. 격변의 사회에서 영적, 도덕적 나침반 제공

사회는 1960년대 이래 가장 큰 문화적 격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격변은 가속적 변화, 세계적팬데믹, 정치적 불신, 제도의 부실 등과 같은 현상으로 우리 삶에 엄청난 광풍들을 몰고 왔습니다. 우리는 성 정체성과 세대 간 차이로 인한 갈등과 분열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이 순간에도 수행해야 할 성경적 사명을 멈출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명을 완수해야 할 사명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가르침과 사역 훈련을 제공 할 것입니다.

2. 현 복음주의 시대에 초월적인 목소리 제공

서구 세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은 세상과는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편협한 사람들이라고 보려는 경향이 날로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유럽과 호주에서 일어났고 지금은 북미권에서마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누려왔던 홈 필드의 이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왔던 문화적 발판을 잃어가고 있음을 말해 줍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미국 사람들은 교회에서 신앙을 전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전도폭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안타깝게도 이제는 더 이상 전도에 관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웃을 향한 접근 방식에 있어서 문화적 적응에 나서야 합니다. 급변하는 문화에서 그리스도

인들이 견고한 발판을 되찾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그동안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된 적응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탈북은 변증론에 있어서 매우 정교하고 면밀한 교육 훈련 과정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면에서 탈북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신앙을 나눌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일에 최고 수준의 프로그램과 훈련 그리고 자원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옥스퍼드에 가서 OxfordCenter for Christian Apologetics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조차 세계 최고의 변증학프로그램은 바이올라 탈북에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탈북은 이런 면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3. 불변의 진리와 창의적인 교육 방법을 조화롭게 담아내는 신학과 사역 제공

복음주의는 변함없는 진리와 복음의 전파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서 있었습니다. 동시에 진리를 선포하는 창의적이고 참신한 방법에 열려 있습니다. 조지 힛필드는 당시로서는 결코 쉽지않은 방법으로서 광부들을 위해 노천광에서 그대로 설교하였습니다. 존 웨슬리는 전도 소책자를 출간하였고 소그룹(속회) 모임이라고 하는 참신한 방법을 실행하였습니다. 대각성 설교자로부터 빌리 그레이엄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사용한 기술적 방법들은 시대를 초월하여 시의적절하게 실천되었으며 이것이 바로 복음주의자들이 걸어온 길입니다.

정보화 시대를 현실로 맞이하고 있는 우리는 새로운 배움의 방식으로 기술 세계에 적응해야 합니다. 탈봇신학교는 디지털 공간을 통해 새로운 커뮤니티 활동을 제공합니다. 이 디지털 공간에서 교수들과 교류하며

새롭고도 참신한 형태의 방편들을 통해 더욱 밀도 높은 배움의 과정이 펼쳐지도록 하는 것이 탈봇의 전략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탈봇은 온오프 하이브리드 방식까지 활용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교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이런 배움의 장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4. 더 다양한 민족과 세대를 대상으로 신학 및 사역 교육 제공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인종과 민족, 연령과 성별, 문화와 국가를 넘어 전달되어야 합니다. 탈북은 이 모든 것을 한 마디로 다양한 국면과 다양한 대상을 향한 복음선포로 규정합니다.

10년 전 미국 인구조사국의 예측은 2040년대에 미국의 백인 인구가 큰변화를 맞이하면서 비백인 인구에 추월당할 것을 예측했지만 이미 예측은 실현되어었습니다. 탈북에서는 아무도 다수가 아닙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와 미래 현실에 적응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기초합니다. 탈북은 해마다 국제적 입지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탈북은 한국어 석박사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미 개설한 한국어 문학 석사프로그램에 이어 한국어로 진행되는 온라인 석사 프로그램도 올 하반기에 런칭할 예정입니다. 미국인 교수들의 강의와 한국인 교수들의 멘토링이 조화롭게 배합된 새로운 형태의 배움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결론

보수적 복음주의 신학교인 탈봇은 하나님
의 무오한 말씀에 대한 우선성과 확신에 찬
사명자 양성이라고 하는 신학교의 사명에 충
실해 왔고 앞으로도 헌신할 것입니다. (끝)

이주형의 시간의 지문

생각은 무엇인가요? - 데카르트의 오류 (2)



이주형 대표
CM 홀딩스

공학자이며 물리학자인 이주형 교수의 『시간의 지문』에서 시간과 존재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시한다.

시간이 단순히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식하는 현실 속에서 다양한 가능성이 공존하는 형태로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양자 물리학에서 말

하는 ‘중첩(superposition)’의 개념과도 일맥상통한다.

우리는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한다. 이는 우리의 사고 과정이 단순한 신경망의 작용이 아니라, 시간이 복합적으로 얹혀 있는 양자적 과정을 시사한다.

생각은 하나의 단순한 정보 처리 과정이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며 최적의 선택을 향해 나아가는 일종의 ‘양자 알고리즘’인 것이다.

3. 생각의 목적과 신앙적 의미

결국, 인간이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 의지를 부여하셨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자유의지는 양자물리학의 관찰했을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의 양자의 습성과 매우 유사하다.

우리는 단순히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라, 스스로 사고하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이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신다(창세기 1:27).

이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창조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의미이다.

또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 깊어질 수 있다.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통해 하나님과 교감하는 과정이고 이 역시 양자의 양자 얽힘(Quantum Entanglement)을 통해 아무리 먼곳으로 떨어져 있는 양자라도 동시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스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동시에 하나님께 영향을 준다는 변론이 될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사고 과정 자체가 하나님과의 연결 고리이며, 양자 물리학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과 함께 우주의 근본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맺음말

생각의 알고리즘은 단순한 신경학적 반응이 아니다. 양자 물리학의 원리와 DNA 코딩의 체계를 통해 볼 때, 인간의 사고는 철저한 설계와 목적을 지닌 하나님의 창조 과정의 일부이다.

우리는 사고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실현할 수 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선택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신성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많은 의미가 된다. (끝)

LAVU[♥]

Payment Processing

Fast & Secure Payments

Users Love Us

Easiest To Use
WINTER 2025

Highest User Adoption
WINTER 2025

High Performer
WINTER 2025

아직도 카드 수수료 내고 계신가요?

- ✔ 카드 수수료 99% 제거 옵션
- ✔ DoorDash & UberEats 수수료 제거 옵션
- ✔ 모든 배달앱 한 모니터로 관리
- ✔ 소비자가 뽑은 베스트 레스토랑 POS 시스템

고든 램지가 추천한 바로 그 POS

213-887-0046
한국어 상담 가능

레스토랑 전문이지만 “헤어샵 및 모든 industry 카드 수수료 제거 적용 가능? (월 20불)”

213-887-0046로 “DEMO”라는 문자 주시면 줌 미팅 통해 상세사항 전달드리겠습니다



ACTION CAMP에 오셔서 힐링하세요!

가족, 친구, 성도분들과 멋진 여행을 통해
기억에 남는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Action Camp장은...



Music Festival



Camping



PCT Hiker



Church Retreat



Youth Group Retreat



Cabin Town



Movie Night

미국내 가장 좋은 시설여건, 서비스

- 1 교회 수련회, 단체 할인 혜택
- 2 단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공연장과 야외 영화도 볼 수 있는 스크린 설치
- 3 사워장, 공연장, 카페, 수영장, 배구장, 농구장, 놀이터
- 4 야외 파티와 행사를 할 수 있는 편의시설과 위락시설
- 5 디럭스 캐빈(Deluxe Cabin), 오토 캠핑(RV), 인디안텐트(TeePee), 텐트(Tent)장 주변에 전기, 수도, 식탁, 하수도 시설
- 6 회원의 경우 캠프사이트나 캐빈을 이용할 경우 할인혜택



www.actioncamp.cc / larvresort.com



전화예약 or 온라인예약
T. 661-268-1214

7601 Soledad Canyon Rd, Action CA 93510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우리 곁에 오신 구원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구주 예수를 영원히 감격하며 누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랑



예수를 기다리며

J. D. 그리어 | 정성목 역 | 두란노 | 104쪽 | 10,000원

아기 예수가 태어나기 800년 전에 이사야는 예수가 갖게 될 이름을 선포하였으니(사 9:6), ‘기묘자·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다. 그 이름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는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아기 예수인 이유가 모두 담겨 있다

저자는 이 이름들을 묵상하고 연구하며 예수의 탄생이 왜 그토록 좋은 소식인지, 왜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지를 독자와 나눈다. 이 책을 통해 성탄절의 중심에 있는 아기 예수야말로 무기력이나 절망감에 사로잡힌 우리가 부여잡을 유일한 소망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매년 성탄절을 앞두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온 인류에게 미친 좋은 소식을 더 따뜻하고 친밀하게 묵상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을 찾는다. 묵상집으로 나온 책들은 12월 1일부터 25일까지(혹은 24일까지) 매일 ‘우리 곁에 오신 구원자를 묵상하는 대림절’을 선물한다.

2024년 올해 가장 빠르게 그리고 매력적으로 다가온 묵상집은 J. D. 그리어가 쓴 이 책 곧 <예수를 기다리며>였다(두란노, 2024). 104페이지의 짧은 소책자이고 3개 파트로 구성된 6장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책은, 엘리스 피츠패트릭이나 폴 트립처럼 익숙한 저자의 추천을 받은 좋은 묵상집이다. 폴 트립은 “탁월한 이야기꾼이 쓴 매력적이고 지혜로운 책”이라고 칭찬했고, 피츠패트릭은 “지혜와 통찰로 가득 찬… 작은 책”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더럼에 있는 서밋 교회 담임목사로 2002년부터 섬겨온 J. D. 그리어의 저서는 국내 제법 소개가 됐다. 10권에 가까운 책이 몇몇 출판사를 통해 출간됐다. 출판사는 저자를 소개하면서 그가 섬기는 서밋 교회를 대표하는 키워드가 ‘예수 복음 중심’과 ‘파송 문화’라고 했다. 그의 저서가 대부분 복음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 또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삼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죄인에게 얼마나 좋은 소식이 임하게 됐는지 우리는 말하고 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이 책에 잘 드러난다.

특히 마지막 6장에서 그리어는 자신과 타인의 관계를 점점 더 친밀한 관계로 좁혀가며 설명한다. 그를 전혀 모르는 사람부터 시작해 가장 자기를 잘 알고 많이 사랑하는 아내까지. 그는 이 책에서 소개한 구주가 모든 독자에게 그만큼 가까운 대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기본적으로 <예수를 기다리며>는 핵심 본문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책이다. 이사야 9장 6절은 한 아기로 오실

구주를 예언하는 선지자의 글이다. 인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기묘자와 모사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시다. 그리어는 각각의 이름 뜻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2장에서는 ‘기묘자·모사’를, 3장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4장에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5장에서는 ‘평강의 왕’을 묵상하도록 돕는다.

그가 예언된 메시아의 이름을 살펴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각 이름을 살펴보면 이 아기의 탄생이 왜 그토록 좋은 소식인지, 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이름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26쪽)”. 그는 성탄절에 여전히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억눌리고 침을 누리지 못하며 소망이 없어 절망한 자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이 책을 통하여 말하기 원한다.

저자 그리어는 단순히 구주가 누구이시며 어떻게 예언대로 역사를 이루셨는지 설명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독자에게 끊임없이 그 구원자가 우리 곁에 오셨다는 것을 알려준다.

구세주 예수가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의 짐을 대신 지고,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끊임없이 화목하게 하며, 믿음과 소망 가운데 자라게 하고, 갈등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고 확신한다. 2천 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로부터 2천 년 후인 지금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분이다. 과거 그분이 이루신 좋은 일은 현재 우리에게도 여전히 좋은 일이 되고 미래에 더 좋은 일을 기대하게 한다.

책의 원래 제목은 ‘Searching for Christmas’인데, 번역하면 ‘성탄절을 자세히 살피기’ 정도가 될 것이다. 그렇다. 올해도 우리는 성탄절을 자세히 살펴 구주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일을 가져다주셨는지 깊이 묵상하고 감사해야 한다. 이 책에서 특별히 신선했던 점은 그리어가 ‘영



J.D. 그리어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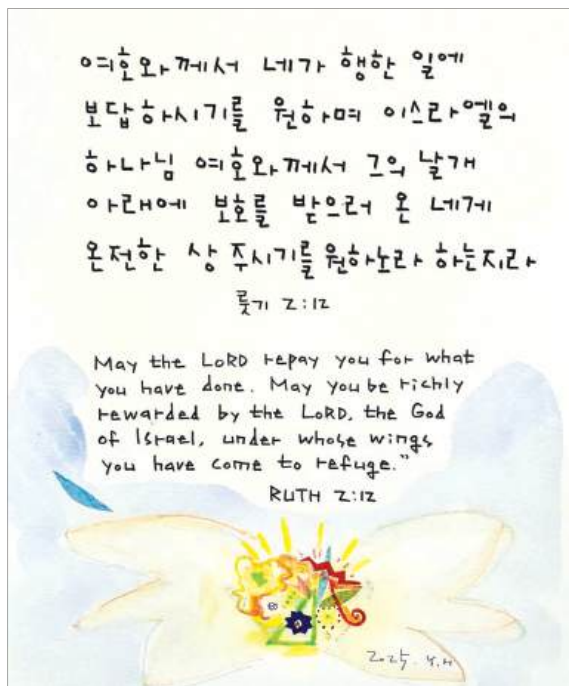
존하시는 아버지’를 설명한 4장에서 몇몇 잘못된 아버지의 예를 소개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그가 언급한 “절대 만족할 줄 모르는 아버지”, “시한폭탄 아버지”, “냉담한 아버지”, “곁에 없는 아버지”의 경험을 통하여 많은 상처와 부작용을 안고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리어는 예수님은 완벽한 아버지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말한다. 육신의 아버지가 어땠는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부족함 없이 아버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중적으로 성탄절은 ‘사랑의 절기’로 받아들여지고 또 소비된다. 하지만 창세 전에 계획하신 사랑, 구약시대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대로, 수천년 전에 우리를 위해 실행된 그 사랑, 그래서 구주 예수를 통하여 영원히 감격하며 누릴 수 있는 그 완전한 사랑을 자세히 살피며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 J. D. 그리어가 이 책을 통해 모든 독자를 더 친밀하게 따뜻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대해 본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 묵상 | 김영희 권사



용수산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집안의 대를 이어 나가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할머니 손 맛 그대로!
48시간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 맛!
최고급 고기만을 엄선!

송영 투크 설렁탕

단체주문 환영

T.(213)277-1339

2717 W Olympic Blvd. #108 LA, CA 90006(구) 베버리순두부 자리

삼페인-어바나 한인교회 담임목사 청빙 공고

삼페인-어바나 한인교회(KCCU)에서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새로운 담임목사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본 교회는 52년간 청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여 세상에 파송하는 청년 사역과 아울러 성인 목회를 통해 유학과 이민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섬기고 양육해 왔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이끌어 주신 담임 목사님의 은퇴를 앞두고, 사랑과 열정으로 교회를 이끌어 주실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일리노이 주 중부 캠퍼스 타운인 어바나-삼페인에 위치해 있으며, 일리노이 대학교 (University of Illinois)와 파크랜드 컬리지(Parkland College)에 다니는 학생들 및 교포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자격

- PCUSA 미국 장로교 소속이거나 가입이 가능한 분
- 정규 신학대학원 M. Div 이상 학위를 받으신 분
- 3년 이상 목회 경력이 있으신 분(부 목회자 포함)
- 한국어와 영어로 자유롭게 소통이 가능한 분
-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계시거나 체류가 가능한 분

제출 서류

- 한영 이력서
- 최종학력 증명서 및 목사안수 증명서
- 2명의 추천인 정보 (이름 및 연락처)
- 목회 비전 및 자기소개서 (가족사진 포함)
- 신앙고백서 2장
- 자유 형식 1장
- 링크에 첨부된 2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 1장
- 설교 동영상 3편 (온라인 링크 가능)
- 한국어 설교 2편
- 간단한 영어설교 또는 영어설교 샘플 1편

제출 및 문의 청빙위원회 이메일 kccu.pastor.search@gmail.com

교회 홈페이지 www.kc-cu.com

*서류 심사 및 Zoom 인터뷰는 3월 말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KCU

KOREAN CHURCH OF CHAMPAIGN URBANA
SINCE 1973

삼페인-어바나 한인교회 청빙위원회

[서성록, 한 점의 그림] 네덜란드 아트 트립 2

레이크스 뮤지엄에서 접한 렘브란트의 <유대인 신부>

반 고흐가 감상하고 극찬한 작품
두 인물의 감동적인 포옹과 시선
정신적·육체적 사랑 절묘한 조화
이삭과 리브가 그 시대 끌어들이

레이크스 뮤지엄(Rijksmuseum)은 암스테르담에 소재한 네덜란드 최대 규모의 국립 미술관이다. 이 미술관은 1200년에서 1950년 사이에 수집된 총 100만 점의 예술품 중 8,000점을 전시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렘브란트, 프란스 할스, 요하네스 베르메르, 얀 반 호연, 야곱 루이스달의 걸작도 포함된다. 미술관은 새로 단장해서인지, 이전보다 넓고 쾌적했으며 특히 3층에 진열된 17세기 네덜란드의 소장품이 볼 만했다.

소장품 중에서 단연 압권은 렘브란트(Rembrandt)의 <유대인 신부>였다(레이크스 뮤지엄은 렘브란트 유화 22점 외에도 수백점의 판화와 소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이 작품과 관련해서 전해 오는 일화가 있다.

1885년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는 친구 안톤 케서마커스와 함께 레이크스 뮤지엄을 찾았다.

<유대인 신부>(Jewish Bride, 1665)를 보며 “나는 말라 비틀어진 빵만 먹더라도 2주일간 계속 이 그림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다면, 기꺼이 내 생애의 10년과 바꿀 수 있을 것이다”는 말을 남겼다.

두 인물의 감동적인 포옹과 사랑스러운 시선은 반 고흐에게 강력한 반응을 이끌어내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훈훈한 감정이 묻어

나는 남성의 얼굴과 따뜻한 손길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는데, 남성의 왼손은 신부의 어깨에 살짝 얹고 오른손은 신부의 가슴에 살며시 대고 있는 구도이다.

19세기 초 암스테르담의 한 수집가는 나 이 차가 나 보이는 두 사람을 ‘결혼하는 딸에게 목걸이를 걸어주는 유대인 아버지’로 해석했다. 이로부터 <유대인 신부>라는 명칭이 생겼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더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전에 제작한 드로잉 <이삭과 리브>를 훑어보는 아비멜렉(1654)도 이와 비슷하게 남성이 여성을 다정하게 포옹하는 구도로 되어 있다. 그러나 약간의 차이점도 찾아지는데 그것은 그림의 오른쪽 상단 발코니에서 연인들을 몰래 지켜보는 남자의 얼굴이다. 이것이 바로 그림의 주제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창세기에 따르면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를 아비멜렉이 다스리던 블레셋 땅 그랄로 보내셨다. 그런데 이삭은 아름다운 아내를 탐하는 사람들에게 살해당할까 겁이 나서 아내를 누이동생으로 속였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비멜렉은 창밖을 보다가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것(창 26:8)”을 보게 됐다. 아비멜렉은 이삭의 속임수를 질책하지만 이방인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명령하면서,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미술사학자들은 이 소묘 작품을 근거로 <유대인 신부>가 나왔고 그림의 주인공이 그랄 지역의 이삭과 리브가라고 파악하게 되었다.

반 고흐는 렘브란트가 <유대인 신부>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크게 감명을 받았던 것



렘브란트, 유대인 신부(이삭과 리브가), 캔버스에 유채, 121.5x166.5cm, 1665년경, 암스테르담 레이크스 뮤지엄 소장.

같다. 또 한 가지 반 고흐를 고무시켰던 것은 그림의 혁신적인 회화 기법이었다. 렘브란트가 이 작품을 제작할 당시 약 60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예술적 솜씨를 동원하여 가장 풍부한 질감과 텍스처의 화면을 만들어냈다.

그는 이삭이 입고 있는 의상에 매우 얇은 선, 즉 망토와 소매, 그리고 그의 저킨 슈트에 지그재그 패턴과 주름을 넣고 스크래치 효과를 극대화시켰다. 이런 테크닉은 특히 넓은 황금색 소매에서 두드러지는데, 두꺼운 물감을 칠하고 나이프로 깎아내고 밀어내는 방식을 통해 풍부한 질감효과를 조성하였다.

밋밋한 바탕과 비교해볼 때, 소매 부분은 부조가 더욱 분명해 보인다. 팔레트 나이프로 물감을 조작하는 기법에 대해 요나단 비커(Jonathan Bikker)는 ‘매혹적인 클라이맥스’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앞에서 지적했듯 <유대인 신부>를 그릴 때, 렘브란트는 아비멜렉을 배제시켰다. 아비멜렉이 빠짐으로써 이제 관객은 두 연인을 응시하는 정답권 역할을 맡는다. 우리를 현장에 직접 참여시키는 셈이다.

렘브란트는 정답의 역할을 관객에게 맡김으로써 두 사람의 친밀감과 따뜻한 사랑을 깊이 있게 바라보게 하였을 수 있다. 렘브란트 전기 작가인 크리스토퍼 화이트(Christopher White)가 “회화 역사상 정신적·육체적 사랑의 절묘한 조화를 가장 잘 표현한 작품 중 하나”로 말할 수 있었던 것도 이와 같은 배경에서다. 우리는 흔히 구약의 인물인 이삭과 리브가를 아득히 먼 세계에 있음직한, 전설적 인물로 기억할 수 있다. 그런데 렘브란트는 ‘역사적 초상화’의 형식을 빌려, 두 사람을 렘브란트 시대의 인물로 끌어오고 있다. 이삭과 리브가로 분장한 실제 커플이 누

구였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두 모델을 정황상 전혀 추측할 수 없는 것만도 아니다. 특히 성경의 인물들을 그릴 때 렘브란트가 교유하던 유대인을 모델로 기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암스테르담에는 그들은 스페인의 종교탄압으로 저지대로 넘어오거나 포르투갈에 정착했다가 쫓겨난 사람들의 후예였다.

네덜란드 사회는 이주자였던 부유하고 유능한 유대인들을 받아들였고 그들은 네덜란드가 발전하는데 기여함으로써 공화국의 일원이 됐다. 렘브란트의 경우 유대인의 초상을 그린 적도 있고 애호가층이 있을 만큼 스스럼없이 지냈다. 그가 거주하던 요덴부르트(Jodenbuurt)도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었다. 이런 연유로 훗날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렘브란트에 대해 그의 예술 세계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유대인 국민 시인 비알리크(Bialik)는 “렘브란트는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유대인에 대한 그의 사랑과 공감 때문에 우리는 그를 명예로운 유대인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고, “이 천재는 다른 어떤 이방인 화가도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기적적으로 히브리 영혼의 핵심을 포착했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비알리크는 수많은 화가가 있지만 렘브란트만큼 자신의 민족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이 모두가 렘브란트가 성경 그림을 제작함으로써 비롯된 일이며, 유대인들에 대해 호의적이었던 네덜란드 사회의 관용이 빚어낸 결과이다.

이 명화를 통해 우리는 이삭과 리브가의 친밀함, 곧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의 견고한 반석 위에서 서 있는 두 사람의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서성록 명예교수(안동대)



레이크스 뮤지엄에서 렘브란트 작품을 감상하는 방문객들. ©서성록 교수

NEW COVENANT ACADEMY

CELEBRATING 26 YEARS

AN IB WORLD SCHOOL

- RIGOROUS ACADEMIC PROGRAM
- EFFECTIVE AND CARING TEACHERS
- SAFE AND NURTURING CAMPUS
- AFFORDABLE TUITION
- SOLID CHRISTIAN EDUCATION
- 100% UC ACCEPTANCE
- 10:1 STUDENT-TO-TEACHER RATIO
- WASC ACCREDITED
- SENIOR SAT AVERAGE: 1370

ENROLLING NOW! K-12

Voted #6 Best Christian High School in CA

FOR MORE INFO

SCAN ME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213) 487-5437
NCAHUSKIES.ORG

“ ‘영혼의 파수꾼’ 목사님들,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특별 대담] ‘탄핵 반대’ 광장 나선 ‘91세 원로’ 박조준 목사

자유민주주의 아니면 공산화돼
공산주의 좋다? 북한으로 가야
목회자들, 하나님 뜻 사명 감당
공산주의는 거짓, 속아선 안 돼

“2 한국교회의 대표적 원로 중 한 사람으로 91세의 노구를 이끌고 연일 광장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박조준 목사[국제독립교회연합회(WAIC) 설립자]를 만났다. “대통령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난다”는 박 목사는 “민심이 천심이라고 했다. 객관적으로 탄핵 반대 목소리가 큰가, 찬성 목소리가 큰가”라고 되물었다. 이북 출신으로서 몸소 공산주의의 폐해를 겪어 본 그는, 이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버린 한국사회와 한국교회에 안타까움을 피력하기도 했다. 다음은 박 목사와의 일문일답.

-연세도 그렇고 최근 건강 문제도 있으셨는데, 3.1절 여의도 집회와 3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잇따라 나가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정치는 모릅니다. 목회만 사명으로 알고 해 왔습니다. 다만 저는 해방 직후 오로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월남했어요. 제게는 자유민주주의가 무엇보다 소중해요. 그래서 예전에 카터(당시 미국 대통령)가 미군을 철수시킨다고 했을 때, 목을 내놓고 나섰습니다. 무식하지만 그저 제 방법으로 나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면, 공산화되는 것 아닙니까? 뻔합니다.

공산화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숨 내놓아야죠. 지금도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3분의 2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북한의 주적 다섯 부류가 있는데, 그 중 최상위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기독교는 공산주의의 적입니다. 칼 마르크스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편이란 잠시 고통을 잊게 할 뿐, 치료해 주진 못하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아니면 공산주의입니다. 이걸 알아야 해요. 저는 5년 동안 공산주의 체제 아래 살아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북한은 어떻게니까? 지금 탈북민들이 (편하게) 자동차 타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굶어 죽느니 탈출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두만강, 압록강 건너다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새 공산주의가 좋다는 사람들 있는데, 북한으로 보내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다 옛날 일 아니냐면서 ‘극우’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공산주의자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뱀이 꼬드기지 않았어요? ‘동산 과일을 다 먹지 말라고 하셨냐’고 묻죠. 뱀이 물렸을까요? 마음을 떠 보는 거예요. 다 먹어도 되는데 저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하면, ‘왜 못 먹게 했을까? 먹으면 자기처럼 될까 봐 그래’ 하는 식이죠. 마음 속에 불만과 불신을 키우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먹지 말라면 더 먹고 싶고, 보지 말라면 더 보고 싶잖아요? 그랬더니 여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생겼죠. 여자가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답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어요. 불만과 불신이 있는 곳에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많은 국민들에게 있는 불만과 불신, 한을 이용해요. 그렇게 선악과를 따 먹었더니, 하나님처럼 됐어요? 아니죠. 이게 공산주의이고, 마귀입니다. 공산주의의 조상은 마귀입니다. 마귀의 영은 거짓입니다. 요즘에도 거짓말 해놓고 책임지는 거 봤어요? 지금 국회에서 행정부 각료를 탄핵시키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다 기각되고 있죠. 그런데 그 의원들 미안하다는 말 들어봤어요? 탄핵으로 국가적 손실이 얼마나 많이 발생했어요? 의원을 변호인단 비용은 국비로 냈다면서요? 이런 도둑놈들이 어디 있어요? 거짓말을 뽕 먹듯 해요. 미안한 말이지만 그 사람들, 반미 하고 미국 대사관에 불 지르다 아들 딸은 어디 보냈어요? 러시아? 중국? 미국에 보냈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런 모순 속에 사는 사람들이예요. 공산주의는 자기 모순이에요. 국민들한테 25만 원씩 주자고 한다? 경쟁 사회인데, 사람들 거지 만드는 것 아닙니까. 공산주의죠. 자기 돈으로 줍니까? 웃기는 일이에요. 속아선 안 됩니다.”

-최근 목사님께서 이런 국가적 위기와 나라의 혼란 가운데 침묵하는 목회자들에게 호통을 치시는 영상이 화제가 됐습니다.

“목사님들이 들으시면 좀 섭섭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때를 위해 목사 된 것 아닙니까? 목사들은 영혼의 파수꾼이잖아요. 파수꾼의 사명은 성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적이 쳐

들어 오는지 감시해야죠. 적이 나타났을 때는 외쳐야겠죠. 파수꾼이 잠을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역사적으로 난공불락의 성들이 함락된 이유는, 파수꾼들이 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은 누구도 쳐들어오지 못한다, 안전하다’며 자고 있을 때를 노려서 적들은 넘어옵니다.

우리 영혼이 그래요. 저도 목사이지만, 목사들이 깨어나면 좋겠어요. ‘별일 없고 편안한데 왜들 그러냐’ 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죽하면 ‘우리 목사님이 바로 말씀해 주면 좋겠는데...’ 하고 교인들이 안타까워해요. 왜 못할까요? 교인들 중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들 나갈 텐데 하기 때문이죠. 눈치 보느라 못 하잖아요. 또 어떤 목사님은 특정 교인들에게 짝 잡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나를 옳판처럼 돕는 분이 안 좋아해서 못한다’고 하세요. 큰 교회 목사들도 그런 사람들에게 짝 잡혀 있어요. 훌륭한 목사님들이 다른 말씀을 못 하고 그저 회개하라고 해요. 답답합니다. 어쨌든 큰 교회가 영향력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나서면 한국교회가 달라질 거예요. 작은 교회들은 그들대로 ‘큰 교회 목사님도 가만히 있는데, 내가 해서 뭐해’ 하고 가만히 있어요. 이걸 깨야 합니다. 병어리가 돼선 안 됩니다. 한국 목회자가 10만 명이라는데, 10만 목회자가 일어나면 공산화는 어렵도 없을 것입니다.”

목사들, 공의와 진리 편에 서야
예수님도 자기 대신 하나님 뜻
이해관계 얹매이면 장사꾼 불과
전한길 강사 감동, 틀린 말 있나

-그래도 최근 나라를 지키겠다고 나서는 사람들 중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럼요. 본래 그렇습니다. 목사도 사람인지라 무언가의 영향을 안 받는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심부름을 해야죠.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공의와 상식, 진리의 편에 서야지, 그 반대 서면 안 되잖아요. 그 반대를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동조하는 거



박조준 목사

예요. 과거 순교자들이 왜 순교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바리새인들 옳다, 잘한다 그랬다면 예수님은 십자가 안 지셔도 됐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을 기억하시죠? 하지만 그다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덧붙이셨죠. 기도라는 건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이뤄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사명이지, 이해관계에 얽매이는 건 장사꾼에 불과해요.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나서야죠. 우리가 가는 길이 공의의 길이나 사의와 잘 못된 길이나, 진실의 길이나 거짓의 길이나, 이걸 따져야 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지, 거짓이 자유케 하는 건 아닙니다. 거짓을 따라가면 죄의 노예가 될 뿐이에요.”

-그런 기독교인들 중 애정을 갖고 격려해 주고픈 후배들이 있으신가요.

“한국사를 가르치던 전한길 선생이 나선 것을 보고 감동받았어요. 그분도 신앙을 가졌다고 하죠? 목사가 볼 때도 나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목사 100명, 1000명보다 나아요. 들어 보니 그분 연봉이 60억 원이고 세금을 1년에 27억 5천만 원 내는데, 그걸 포기하고 나라 바로 세우겠다고 나섰잖아요. 꼴들 보니 돼먹지 않았겠죠.

그분이그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지적하는데, 틀린 말이 있어요? 사실이 아닌 말이 있어요? 정확하지 않은 말이 있어요? 허튼 말이 있어요? 거짓말한 게 있어요? 그분이야말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참 귀합니다. 우리 목사들이 그분의 10분의1이라도 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해요.

공격하자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사실대로만 말하면 좋겠어요. 굳이 공격 안 해도 돼요. 선거관리위원회 보세요. 대법관 출신들이 다 말하는데, 더 이상 올라갈 데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잠깐 감사했더니 규정 위반사항이 878건 나왔다면서요. 그래서 따졌더니 ‘우리는 과거부터 가족 회사입니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말이 돼요? 더구나 국회에서 국민들 앞에서 한 말이잖아요. 저도 나라에 세금 내고 살지만, 국민 세금으로 그 따위 사람들 먹여야 되겠어요?선관위가 그러니 선거 관리도 부실했을 거 아닙니까? 조사해 봐야죠. 국민들 의심을 풀어주는 게 할 일 아니예요? 부끄러울 게 없으면 당당히 내놓으면 되잖아요. 표를 광주리에 담아 놓고, 어느 미개한 나라도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조사해 보자고 하니 그런 일 없다고 믿어 달래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끝으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나 성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에스더가 왕후로서 편안히 있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모르드개가를 일깨웠어요. ‘이때를 위해 왕후가 된 것을 모르느냐?’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이다’는 각오로 함께 기도한 후 왕에게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개가를 죽이려고 설치한 망대에서 결국 자신이 죽었잖아요. 그런 일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안 그러면 부끄러운 역사의 존재로 남을 것입니다.”

크리스천투데이 제공

SHARING BREAD FOR SOUL

사순절 금식을
나눔의 금식으로!

사순절 기간 하루 한끼 금식으로 가난한 이웃에게 소망을 나누시다

World Share USA 홍보 대사

전용대 목사

지경 교수

목사님! 성도님!

2025년 사순절이 다가옵니다. 거룩한 사순절 기간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축복된 계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삶과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 닮은 나눔과 사랑의 실천으로 영혼도 살고, 교회도 살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의 영혼도 살리는 축복의 캠페인을 소개합니다. 사순절 나눔의 금식은 사순절(40일) 기간에 한끼씩 금식하면서, 영육에 가난한 어린이를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여 절약한 선교비(3불X 40일)를 선교지에 보내는 영성 훈련과 사랑의 실천 캠페인입니다. 기도, 금식, 나눔 그리고 선교를 함께 실천하는 축복된 사순절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World Share USA 대표 강태광 목사의 임직원 일동

2025 사순절 개요 시작일: 3월 5일~종료일: 4월 19일

World Share USA는 소망학교(아이티, 도미니카), 고아원(수리남), 전쟁 희생 유가족(우크라이나) 돕기를 합니다.

어떻게 참가할까요?

개인

월드쉐어USA로 사순절 나눔의 금식에 참가 통보 (가능한 미리 공지 및 통보 해주시면 사순절 기간을 더 잘 보낼 수 있습니다.)하고, 사순절 금식 선교비를 월드쉐어USA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교회

나눔의 금식 참가의사를 월드쉐어USA에 알려 주시고, 성도들에게 참가를 권면하시고 성도들의 금식비 선교비를 월드쉐어 USA로 전달하십니다.

월드쉐어USA

아이티, 수리남, 도미니카의 극빈지역 아동들과 고아원 아동들의 사순절 기간에 양육 프로그램과 영혼을 위한 빵을 나누는 SBS (Sharing Bread for Soul)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2025 사순절 나눔의 금식 준비위원회

민경엽 목사
준비위원장

박세현 목사
부 준비위원장

김영일 목사
준비위원

안신기 목사
준비위원

양경선 목사
준비위원

최국현 목사
준비위원

이인규 목사
준비위원

써니김 목사
준비위원

김은목 목사
준비위원

진건호 목사
준비위원

양국민 목사
준비위원

김정호 목사
준비위원

World Share USA

Sharing Bread for Soul

후원문의 (323)578-7933 강태광 목사

3123 W. 8th St. #206, Los Angeles, CA 90005

MOTHER'S DAY PREMIUM TROT DINNER SHOW

프리미엄 트롯 디너쇼

마더스데이를 맞아 미스 & 미스터트롯 스타들과
함께하는 감동의 디너쇼를 부모님께 선물하세요~!



강예슬 미스트롯 1



나태주 미스터트롯1



김의영 미스트롯 2

2025년 5월 11일 오후 6시 (입장: 오후 4시)

Taglyan Complex (엘에이 최고의 이벤트 홀)



트로트 디너 콘서트 티켓 선물 이벤트



[이벤트 안내]

“우리 부모님을 꼭 이 디너쇼에 모시고 싶은 이유” 사연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4분께 디너쇼 티켓**을 선물로 드립니다.

- 접수 마감: 4월 1일
- 당첨자 발표: 4월 4일(기독교일보)
- 사연보내실곳 : kticketbox@trinity-ms.com

지금 사연을 보내시고, 부모님께 잊지 못할 하루를 선물하세요!

문의 | kticketbox@trinity-ms.com

